2013 06 1966년창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 소통의 연결브리지 환자의 마음을 담아 모든 병원을 재건축 하라! 건축도시 파주의 이인재 시장을 만나다 특집 인터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

What should be done?



김의중 | Kim, Eui-jung, KIRA 대한건축사협회 비상근부회장

건축사에게 위기가 닥쳤다. 우리만 위기가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어느 곳 하나 멀쩡하질 못한 듯하다. 우리에겐 어려움이 너무 오래동안 지속되었다. 툴툴 털고 일어날 방법은 없는가?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렵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길을 찾아야 한다. 멈춰서 해결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곳을 뚫고 지나가는 것뿐이다. 건축사지 500호 시론(時論)에 모든 답이 나와 있다는 선배의 말처럼¹⁾, 그 답 중에서 지금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한다.

먼저 법제화(法制化)이다.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숨이 가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설계시장은 점점 위축되고 우리끼리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건축관련 전문분야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불합리, 불공정한 제도가 널려있다. CM,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이어 건축기획, 파사드 컨설팅, 리노하우스 등 새로운 시장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불합리, 불공정한 제도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작은 움직임까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이를 장한단기 정책(政策)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국가에게,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법제화 시켜야한다. 법과 제도 없이는 아무일도 할 수 없고, 법제화는 험단하다. 많은 회원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유행하는 밀당도 필요할 것이다. 때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 법제화시켜,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해야한다.

다음은 교육(教育)이다. 500㎡이상 대부분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고, 아파트 등은 매매나 임대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기법에서 건축설계도 CM이 총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적이 있다. 도면에 자재를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자재 분야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기획, 파사드, 에너지부분, CM, 자재선택 등 모두 우리의 업무이다. 많은 회원들이 설계에 집중하고, 전문화하지 못한 결과 시장을 잠식당했다. 회원 중에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많은 시간 노력한 자는 각자의 전문분야로 들어섰다. 최근 법령 추진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대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올해부터 건축사 실무교육이 시행된다. 팍팍한 살림에 교육비까지 부담하면서 받아야 하는 교육제도가 편치는 않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전문화로 변화하는 교육과정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열릴 것이다. 2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건축이 건설용역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규제 위주에서 진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서비스 분야의 할 일을 찾아내고, 굽은 것은 퍼서 법제화하고, 협회는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한다. 이 모든 일에 회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끝으로 "본업을 버리는 자는 망하고,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돛을 올리는 시공은 결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 바람에 따라 그때그때 돛의 방향을 바꿔야 순풍을 따를 수있다. 또, 평균풍속보다 순간풍속은 훨씬 빠르다. 1톤을 견뎌야 한다면 5톤은 견딜 수 있게 배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 역시 미리 위기를 준비해야지 위기가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의 인터뷰 중에서) 間

필자는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비상근부회 장으로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하고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대표로 재 직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초지역건축사회장과 본협회 이사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 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서초구 건축심 의위원, 서울고법 조정위원 및 전문 심리 위원, 신공항건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¹⁾ 원고를 마감할 즈음 배달된 건축사지 5월호에 1966년에도 계약서와 설계보수대가가 "뜨거운 감자"였단다. 2)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통시장 강소상인에게 배우는 지혜" 참조바람.

소통의 연결브리지

Bridge for Interaction

-신뢰를 바탕으로



김득수 | Kim, Deuk-su, KIRA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새롭게 출범한 김영수 회장체제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기 때문에 새벽에 서둘러 협회로 출근했다. 회장이하 집행부는 물론이고 전담 사무처 직원들까지도 모두 모이는 자리다보니 이른 시간이지만 협회의 아침은 생기가 넘쳤다. 한편 새벽밥도 못 먹고 출근했을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다. 조식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햄버거와 커피 한잔으로 속을 달래며 시작된 업무보고는 4월 1일 기획실을 필두로 2일 운영실, 3일 친환경건축연구원, 4일 교육관리실, 5일에는 회원지원실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8일 등록관리실, 10일 문화홍보실, 11일 정책연구실까지 거의 매일 자기 부서의 업무와활동에 대한 보고를 했다. 회장을 비롯해 상근부회장, 사무처장 그리고 각실 팀장 이하 담당 직원까지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게 되니 그간 우리 협회의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각 팀별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등 주요 업무보고를 충분히 듣고 점검할 사항과 보안할 내용들을 나누면서 각 팀장들의 결연에 찬 각오를 들으니, 앞으로 5년 정도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진 위상을 갖겠구나 생각하며 절로 뿌듯함이 느껴졌다. 2시간 이상 격의 없이 덕담을 주고받다보니 서로에게 경청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소통이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우선 잘 새겨듣는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협회가 사무처나 임원들만이 아니라 전 회원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지금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모든 개인과 단체가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도 경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예측하는 것이 무척중요하다. 그때그때마다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막기에 급급해 있다면 변화의 풍랑을 해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친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4월 26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기 축구대회가 열렸다.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의 2013년 상반기행사로 1박2일간 전남 순천에서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행사에 각 시도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대한건축사 축구연합회는 5월 25일 '2013 WA-CUP(건축사 국제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등 총 5개국 190명의 건축사 축구선수가 진주에 모여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 행사로 인해 2017 UIA서울 세계건축대회가 각국의 건축사들에게 잘 홍보되고 우리 건축사들의 국제친선에도 이바지했기를 바란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써, 작년에 이어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창의체험'이 두 번째로 열렸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동안 천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120명과 자원봉사 및 스태프 60명 등 총 180명 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였다.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영등포구·동작구건 축심의위원 및 에너지관리공단 신도 시·관광단지심의위원을 엮임한 바 있으며, 서울건축사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에너 지설비분과위원장 역임. 서울건축사회 복지회 신용협동조합 이사, 감사, 서울 건축사회 부회장 및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종합건축사시무소 SSP. 삼대대표로 재직 중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 말자. 내가 먼저 움직이면 바람이 생긴다. 희망을 가지되 현재에 충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함께 소통하면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집한 어린이는 120명이었지만, 그 부모와 주변 이웃에게까지 좋은 소문이 나고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큰 행사가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 이화순 건축정책관, 우리 협회 김의중 부회장 그리고 필자인 김득수 감사, 또한 충남건축사회 최종옥 회장이 특별히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새싹들을 보니 그들의 꿈과 끼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활기차고 밝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어린이들 중 몇몇은 훌륭한 건축사로 자라날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시간이 흘러소양 높은 건축주로 자랄 것이다. 우리 협회의 사회를 위한 공헌 프로그램 중 이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창의체험'의 총괄기획과 진행은 어린이들을 위한 건축창의교육에 수년전부터 헌신해온 조원용 건축사가 진행했는데, 역시 건축교육은 건축사가 해야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훌륭하게 잘했다. 앞으로는 이 행사가 더욱 확대되어 봄, 가을로 지속되기를 바래본다. 또한 초등학생 외에 중학생을 위한 진로탐구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한다. 어려서부터 건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장래 좋은 건축주로 자라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6월 2일 오전 8시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는 건설경제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 우리 협회 건축사 마라톤 동호회도 출전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로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건축사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기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여러 채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좋은 의도와 취지의 여러 행사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래본다.

필자는 감사로서 회원을 위한 일이라 판단되면 각종 세미나, 현지답사 및 탐방, 동호회 행사 참관 등 주어진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달 건축사지에 게재한 '사랑방 개방'에 이어 '소통의 연결브리지'가 되고자 한다. 회원의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 간 소통은 물론이며, 집행부와 사무처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협회와 대중과의 소통에도 기여할 길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이 일은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선 집행부와 사무처부터 합심하여 소통에 힘쓰기를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상 사무처의 각 실과 팀별로 전체가 업무보고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새 집행부가 협회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이번 집행부는 효율적인 보고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만큼 집행부의 활동이 커질 것이고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리라 본다. 김영수 회장의 공약사항을 비롯한 당면한 현안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 말자. 내가 먼저 움직이면 바람이 생긴다. 희망을 가지되 현재에 충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함께 소통하면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圖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4월말

구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둤	ᅰ					
건축	1	인	2	인	30	이상	소	. 계	1	인	2	인	3	3인	4	인	5인	이상	소	. 계	합	계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028	6,028	90	180	7	21	6,125	6,229	1,732	1,732	230	460	66	198	24	96	15	102	2,067	2,588	8,192	8,817
서울	948	948	22	44	0	0	970	992	879	879	121	242	45	135	12	48	10	60	1,067	1,364	2,037	2,356
부산	521	521	11	22	2	6	534	549	120	120	24	48	2	6	1	4	2	14	149	192	683	741
대구	507	507	21	42	4	12	532	561	71	71	15	30	4	12	2	8	0	0	92	121	624	682
인천	289	289	3	6	0	0	292	295	64	64	7	14	1	3	0	0	0	0	72	81	364	376
광주	217	217	0	0	0	0	217	217	42	42	7	14	3	9	2	8	0	0	54	73	271	290
대전	266	266	5	10	0	0	271	276	32	32	7	14	4	12	1	4	1	13	45	75	316	351
울산	191	191	5	10	0	0	196	201	20	20	3	6	0	0	0	0	0	0	23	26	219	227
경기	843	843	2	4	0	0	845	847	248	248	18	36	4	12	2	8	0	0	272	304	1,117	1,151
강원	203	203	2	4	0	0	205	207	23	23	2	4	0	0	1	4	0	0	26	31	231	238
충북	229	229	2	4	0	0	231	233	40	40	3	6	2	6	2	8	1	9	48	69	279	302
충남	294	294	1	2	0	0	295	296	55	55	7	14	0	0	1	4	0	0	63	73	358	369
전북	272	272	4	8	0	0	276	280	24	24	4	8	1	3	0	0	0	0	29	35	305	315
전남	217	217	0	0	0	0	217	217	22	22	2	4	0	0	0	0	1	6	25	32	242	249
경북	409	409	4	8	1	3	414	420	39	39	5	10	0	0	0	0	0	0	44	49	458	469
경남	484	484	7	14	0	0	491	498	36	36	4	8	0	0	0	0	0	0	40	44	531	542
제주	138	138	1	2	0	0	139	140	17	17	1	2	0	0	0	0	0	0	18	19	157	15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3년 5월말

구 분	회	조취이	
건축사회	건축사	비 율	준회원
합 계	8,817	100%	17
서 울	2,356	27%	2
부 산	741	8.4%	10
대 구	682	7.7%	0
인 천	376	4.3%	0
광 주	290	3.3%	0
대 전	351	4.0%	0
울 산	227	2,6%	0
경 기	1,151	12.9%	3
강 원	238	2.7%	0
충 북	302	3.4%	0
충 남	369	4.1%	0
전 북	315	3.6%	0
전 남	249	2,8%	0
경 북	469	5.2%	0
경 남	542	6.2%	2
제 주	159	1.8%	0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0,869	1,631				
서 울	3,370	1,135				
부 산	704	54				
대 구	639	29				
인 천	365	4				
광 주	294	29				
대 전	353	31				
울 산	228	19				
경 기	1,342	59				
강 원	256	7				
충 북	315	48				
충 남	360	43				
전 북	312	16				
전 남	259	41				
경 북	478	16				
경 남	571	19				
제 주	159	20				
기 타	864	61				
비고	회원: 8,349 / 비회원: 2,520	대학: 1,486 / 대학원: 145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고
회원수	6,229	2,588	8,817	
비율	70.65%	29.35%	100%	
사무소수	6,125	2,067	8,192	
비율	74.77%	25,23%	100%	

환자의 마음을 담아 모든 병원을 재건축 하라!

Rebuild All Hospital with a Patient's Mind



이왕준 | Lee, Wang-jun 명지병원 이사장

오래된 주택을 보면 자연스럽게 '재건축(Remodeling)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재건축이란 과거의 생활환경에 맞춰진 건물을 현재 환경에 맞도록 개량하는 것이다. 병원도 같은 이유로 재건축을 한다.

예를 들면, 환자를 수용해 치료한다는 과거 병원 개념을 탈피해 최근에는 최소침습수술 (Minimal Invasive Surgery, MIS)이나 외래 항암치료 같은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 또 일일수술처럼 아침에 입원해 수술하고 저녁에 퇴원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요즘 지어진 병원이 아니라면, 이런 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재건축'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병원들이 크고 작은 재건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통계로도 밝혀졌다. 한국의료복 지시설학회 연구에 따르면 개원 후 10년에 전체 병원의 30%, 20년에는 나머지 40%가 재건축을 했다. 30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새로 병원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병원 재건축 사례가 많으니 관련 전문가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쉽다. 그러나 찾아보면 '딱 입맛에 맞는' 병원 건축 전문가는 찾기 힘들다. 병원 건축사가 의료 환경의 변화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 제안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반대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최근 의료 환경에 대해 조언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부분 병원 종사자들은 예산이 한정됐다는 것과 병원 경영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것을 잘 모르기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의료서비스 디자인(Healthcare Service Design)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병원 종사자들, 디자이너(또는 건축사) 그리고 병원 경영자가 집단 토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그에 걸맞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의료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합의료체계인 카이저 퍼머넨티(Kaiser Permanente)와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이 대표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 아예 병원 안에 별도의 상설 기구를 만들기도 했는데 카이저 퍼머넨티는 '가필드 건강의료혁신센터(Garfield Healthcare Innovation Center)', 메이요 클리닉은 '혁신센터(Center for Innovation)',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환자경험국(Office of Patient Experience)'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명지병원도 2011년 병원문화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환자공감센터(Center for Patient Empathy)와 케어디자인센터(Care Design Center)를 운영하면서 '의료서비스 디자인'을 병원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이사장과 의료법인 인천사랑의료재단 이사장, 주간신문 청년의사 발행인 및 회장, 대한병원협회정책이사 및 국제이사,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다.

의료의 발달 속도는 매우 빠르다. 최근에 지어진 병원이라도 새로운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의료계뿐 아니라 건축 전문가들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 적용해 나갈 때 '환자 중심의 건축'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의료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한 사례를 보자. 우리병원 정형외과는 하루 외래환자가 평균 200명 정도다. 여러 과들 중에서 가장 환자가 많은 만큼 환자들의 불만도 많다. 특히 어디가 '부러져' 내원하는 환자는 정형외과 환자들의 특성상 좁은 진료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또 환자가 많다보니 자연스레 진료시간이 짧다는 아쉬운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다. '환자가 많아 생기는 문제'로 치부하고 넘기기 쉽지만 우리는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

우선 환자들의 불만과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만들어 실제 공간에서 검증했다. 우선 휠체어로 출입이 편리하도록입구를 충분히 넓게 만들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팔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료실 책상에 손잡이도 만들었다. 환자 수상 부위에 상관없이 어떻게 눕더라도진료할 수 있도록 180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의사 1명이 동시에 진료를 볼 수있게 2개의 진료실을 연결하되 흔히 보는 옆문 방식이 아닌 뒷문을 만들었다. 보이지않는 공간에 드레싱 카트와 손씻는 세면장을 마련해 의료진의 불편도 해결했다. 진료시공간에서는 환자와 함께 보는 모니터와 처방용 모니터를 구별해 배치했다. 이런 시도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명지병원에 꽤 많다. '숲마루' 검진센터는 어느 병원이나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검진센터를 바꿔 나무와 돌, 식물로 이뤄진 진짜 숲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피톤치드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편백나무와 후박나무, 메타세콰이어가 심겨졌고 그린 월(Green Wall)에는 다양한 습생식물이 자란다. 천정은 투명한 유리로 이뤄져 자연스 레 햇살이 들어온다.

또 명지병원의 암센터의 외래 항암주사실은 휴양지 펜션에 와있는 기분이 들도록 설계됐다. 통유리를 건너 보이는 녹색 정원과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노라면 '친환경 치유 공간'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해마루'로 명명한 정신과 병동은 과거 폐쇄 병동 이미지를 탈피해 안정감을 주는 자연채광과 벽난로가 설치됐다. 최근 병원 건축의 화두인 '그린 & 에코 병원(Green & Eco Hospital)'을 일찌감치 도입한 것이다. 이 역시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의료의 발달 속도는 매우 빠르다. 최근에 지어진 병원이라도 새로운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의료계뿐 아니라 건축 전문가들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 적용해 나갈 때 '환자 중심의 건축'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圖

건축도시 파주의 이인재 시장을 만나다

Meeting with Lee, In-jae, the Mayor of Paju, The City of Architecture



笸

파주시는 헤이리 예술인마을과 대규모 출판단지인 파주출판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건축 도시이다. 특히 "국내 건축의 흐름을 보려면 파주를 가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주는 우수한 건축물을 양산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헤이리 예술인마을은 "예술인들이 꿈꾸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기치로 하여 15만평의 부지에 주거와 미술 관, 박물관, 공연장들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마을이며, 파주출판도시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간의 창조" 라는 주제로 출판과 건축의 만남을 시도한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출판 공동체이다.

이 두 커뮤니티는 건축이 중심이 되어 파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또한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파주시를 전 국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두 커뮤니티를 관광하기 위하여 연중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으며, 건축적인 가치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본지는 건축도시로서의 파주시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을 만나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과 건축행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형수 편집국장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이리 마을은 건축적인 성공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예술마을의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인재 파주시장 '헤이리'라는 이름은 파주지역에 전해져 내려오 는 전래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헤이'는 '얼씨구. 좋구나'하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국내 유일의 예술가들의 공동체 마을로 약 50만㎡(15만평)에 집과 작업실. 미 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다양한 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 하는 문화예술마을로. 획일적인 도시계획단지를 탈피하고 산지 및 하천 등의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 하고 호흡하는 생태마을입니다. 인사동, 대학로에 이어 2009년에 전국에서 세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됐으며 건물 및 모든 설치물이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예술작품입니다.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사 등 380여 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헤이 리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활용해 국내 · 외 갤러리 연합전,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봄 · 가을 축제인 '헤이리 봄예 술축제', '헤이리 판 문화축제' 등 매해 굵직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 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을 조금 더 가깝 고 친근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아이콘이라 할 수 있 습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헤이리 예술인 마을 조성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재 파주시장 첫째로는 파주시가 건축사와 민간 전문가가 진행하는 헤이리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건축사와 민간 전문가가 풍부한 예술적인 소양이나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깊이 개입하는 것 보다는 민간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업무에 매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주시와 전문가들이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규약을 만들고, 그 기준에 공정하게 맞춰 진행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이러한 문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전국에 확산 시키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인재 파주시장 이러한 예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이 다소 걸리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건축문화에 대한 소양교 육이 필요합니다. 요즘 뮤지컬이 오페라와 달리 대중적인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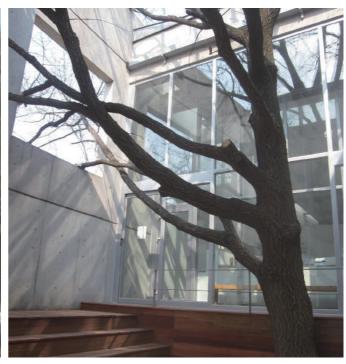
갤러리 소소 / 최삼영(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 헤이리 단지내 소재 / 출처_ 건축사지 459호

끌고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뮤지컬에 친숙한 유소년 세대가 소비자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축이 실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축에 대하여 배우고 건축을 문화로 체험하면서 자란다면 전국에이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많은 문화 커뮤니티가 조성될 것입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파주하면 또하나 떠오르는 것은 '파주출판도시' 일 것입니다. 국내 건축의 메카가 된 이 단지는 지금도 발전을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현재 파주출판도시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인재 파주시장 파주출판도시의 정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 보산업단지'입니다. 출판·인쇄산업에 이어 영상·소프트웨어까지





백순실미술관 / 우경국(예공아트스페이스) /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 / 출처_ 파주시청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출판문화클러스터로서 고용인원 1만 명, 매출액 1조4천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도시 전체가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건축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커다란 건축전시장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담는 공간인 건축은 건강한 삶을 이끕니다. 출판도시의 건축들은 균형을 잃지 않는 공동성의 추구와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비움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은 물론 주변 건물과의 조화까지 고려해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양보도 감내했던 것이 공동성의 추구요, 쓸데없는 담장을 없애고 도시 곳곳에 공간의 여유를 만든 것이 바로 비움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출판도시의 시도는 국내 건축 전공자들은 물론, 세계 건 축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전체를 책방거리, 북카페, 갤러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2011년부터 아시아 최대의 책축제, 「파주BOOK소리」를 개최하여 첫 해 32만 명이 국내외에서 방문, 경기도 10대 축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45만 명이 방문해 138억 원을 지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품격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한 것은 물론 2년 만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책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짧은 역사에도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평소 갖고 계시는 '건축'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

습니다.

이인재 파주시장 건축이란 우리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엔 잘 잊고 있는 공기의 존재처럼 건축은 우리 삶에 자연스레 녹아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 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재산, 그리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데, 개발 위주의 사회 풍토가 만든 천박한 인식입니다. 거창한 작품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우리 삶의 일부로서, 작은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서 파주는 파주출판도시, 헤이리 예술마을처럼 문화를 담아내는 건축물이 더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 시키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건축행정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이인재 파주시장 우리 파주시는 건축인허가 건수가 매년 2,000 여건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 중의 하 나이고, 이는 얼마나 파주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나타 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발 수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매일 오전 8시에 인허가 관련 팀장 20명이참여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를 운영하여빠른 민원처리 결정을 통해 기업의 입지지원 및 민원편의를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란 우리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엔 잘 잊고 있는 공기의 존재처럼 건축은 우리 삶에 자연스레 녹아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재산, 그리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데, 개발 위주의 사회 풍토가 만든 천박한 인식입니다.

올해부터는 파주시의 건축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제정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쾌적한 도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건축사와의 간담회와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행정의 동반자로서 건축행정에 대한 건의에 귀 기울이고 활발히 정보교류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행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개인적으로 파주출판단지나 헤이리 예술마을의 건축물 중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지요?

이인재 파주시장 파주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비롯하여 각종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건축물이 현재까지 30여동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탄생했고, 그 중 개인적으로 좋아하 는 건축물은 헤이리에 있는 '백순실미술관'입니다.

부지 내부에 80년된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조금도 다치지 않게 건물을 계획하고 벽체를 뚫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건축당시 나무를 베지 않고 건축물과 자연이 하나로 동화된 것처럼 지은 건축물인데 미술관에 관람하러 온 사람들은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인 상수리나무를 감상하면서 자연은 그 자체로 신의 가장 뛰어난 예술품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미국의 드림웍스사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으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테마파크 조성 시 기대효과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이인재 파주시장 드림웍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상품

의 인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한국은 애니메이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 니다. 전 세계 애니메이터가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드림웍스에 도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애니메이 션 시장이 성숙해 있고, 연계산업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시점 에 지난해 말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 드림웍스사를 방문하여 파주시의 우수한 입지 조건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대해서 설명 했습니다. 이에 드림웍스사에서도 테마파크 총 책임자가 지난 3 월에 파주를 방문하여 예정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호감을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지난 2010년 7월 취임이후 곧 3년이 되어갑니다. 시장 재임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파주발전의 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인재 파주시장 먼저 기록을 넘어 파주경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외자유치'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외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중점기업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해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인 '투자진흥과' 신설, '기업SOS 전담팀'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없앤 결과입니다. 2012년 이후에만 2조4,170억 원, 경기도 총 투자유치금액의 85%에 이르는 외자유치,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파주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이 218개 업체에 이릅니다. 이제 파주는 기업호감도시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당 안 숲 / 김인철(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 헤이리 단지내 소재 / 출처_건 축사지 459호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판을 벌여 서울시 소유 (용미리)시립 묘지를 봉안시설 및 자연장으로 축소하고 남은 토지를 교육, 연구, 의료시설을 유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50년 해묵은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간 '묘지도시' 오명을 쓰고, 재산가치 하락, 교통체증, 쓰레기, 오수 문제로 인해 개발 정체에 발목 잡혀 있던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자치단체 간 갈등 없이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시장님께서 고양시 일산구청장, 파주시 부시장에 재임하시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예로 도자기엑스포, 가우디 전시회, 백남준 생가 복원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을 포함한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인재 파주시장 가히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세기이고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를 넘어서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이 와중에 국가나지방정부가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갖고개발 · 육성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재임을 계기로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문화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떠나서도 기본적인 생각은 문화콘텐츠가 곧 국가와 지방의 힘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게 최근 가수 싸이의 세계적인 인기몰이 현상이라 봅니다. 우리 모두가 가수 한 사람의 노래와 춤이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업은 지난 2000년 가을, 서울 세종문화 회관에서 열린 스페인의 유명한 안토니 가우디 전시회입니다. 이행사는 당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황영조 동상을 세우려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이었지만 수입 면에서나 국민들의 호응에 있어선 대단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누구보다도 바르셀로나의 도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현한 예술가이고 그는 성가족 대성당(Sagrada Familia)뿐 아니라 까사밀라와 구엘공원 등 걸작을 만들어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가우디의 건축은 살아있는 미술관이자박물관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안토니 가우디 전시회를 서울 한복판에서 연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열흘 정도의 전시기간 동안 무려 6만 명이라는 유료관광객이 몰려 당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진 외국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다 보면 여러 구조물과 조형물 등이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하며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 대부분은 문명은 있지만 문화가 빈약한 현실이고 문화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 부(富)로부터 나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문화적 콘텐츠들이 계속 개발되고 창의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ㆍ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 보다 앞에 가는 길이고 따라서 많은



관연재 / 정승이(유한 건축사사무소) / 파주시 동패동 소재 / 출처_파주시청







해솔도서관 / 윤의식(주.수림 건축사사무소) /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소재 / 출처 파주시청

문화적 콘텐츠들이 계속 개발되고

남 보다 앞에 가는 길이고 따라서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위험이

이어가서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도사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전해 온 것처럼 노력을

드높일 것입니다.

창의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 ·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전해 온 것처럼 노력을 이어가서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드높일 것입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끝으로 전국 건축사들에게한 말씀하신다면?

이인재 파주시장 건축

사는 참으로 어려운 직

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왕에게 충성을, 전장에서는 승리를 취해야 하는 장수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주 의 많은 요구 사항을 조절하고 동시에 훌륭한 작품을 완성시킨다 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공서 등 유리건물들을 보며 느낀 것인데, 건축은 외양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 건물들의 에너지 낭비와 불편함은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외관만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또실제로 유명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데, 모두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부컨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축물을 설계해 주었으면 합니다.

파주는 분단의 역사와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접경도시이고 최첨단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그리고 유구한 과거와 역동하는 현재, 희망찬미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시도해 왔고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 외중에도 파주만의 가치를 지키고 또, 찾으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통일동산, 파주출판도시, 헤이리 예술마을, LG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파주프로젝트까지 차근차근 랜드마크를 만들어 낼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행복한 파주 만들기에 시민은 물론 작고 큰세계를 창조하는 손들 - 여러 건축사의 도움이 있다면 세계 일류도시의 꿈을 훨씬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건축행정을 비롯, 우리 파주시정에 건축사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시장도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인재 파주시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제2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통일원, 내무부, 경기도 등에서 근무했으며, 초대고양시 일산구청장,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파주시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업적으로는 제1회 세계도자기엑스포 기획 및 실행, 안토니 가우디 전시회 개최, 화성, 남한산성, 명성황후 생가 복원 등이 있다.

우리협회 주관,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창의체험' 성료

2회째 개최…어린이들 "건축이 좋아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해 지난 5월 3, 4일 양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한 '한옥과 함께 하는 건축창의체험(이하 창의체험)'이 성료 됐다.

올 해로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발된 4~6학년 어린이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3일 오전 9시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독립기념관 견학이며, 주 행사장소인 국립중앙청소 년수련원으로 이동한 체험단 어린이들은 레크리에이션, 한옥 및 전통목 수체험, 모형한옥 조립, 김규린 건축사의 명사특강, 국악과 마술공연 등 으로 짜임새 있는 하루일정을 보냈다.

둘째 날은 조원용 건축사의 '재미있는 건축이야기'란 강의에 이어 지 오데식 돔만들기, 자연재료와 찰흙으로 공간 구성하기 등으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건축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이후 조별로 만든 모형에 대해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국 토교통부 장관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시상됐다. 圖

〈수상자 명단〉

(성명, 초등학교 명, 학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상품조팀)

김가을(서울 역촌, 6), 박원빈(화성 동화, 6), 오세훈(양주 광사, 6), 이혁주(서울 상현, 5), 송다울(여주 세종, 5), 이채 은(서울 잠신, 4)

• 국토교통부 장관상(3차원팀)

박여진(대전 샘머리, 6), 김민후(용인 석성, 6), 문예은(양주 송추, 6), 윤준호(광명 광덕, 5), 배현민(서울 영서, 5), 이한결(수원 신풍, 4)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넘버원팀)

남궁종연(성남 매송, 6), 문서윤(서울 재동, 6), 박지원(서울 보라매, 6), 조우리(의정부 동오, 5), 양지호(서울 봉은, 5), 정유진(구미 원호, 4), 이 현(평택 동삭, 4)























- 1. 발대식 직후 함께 한 기념사진 2. 독립기념관을 탐방해 설명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3. 목공체험(톱질) 중인 어린이
- 4. 한옥모형 만들기 체험

- 4. 한옥모형 만들기 체험
 5. 국악공연 관람
 6. '재미있는 건축이야기' 강연 모습
 7. 강연 중인 조원용 건축사
 8. '빨대를 이용한 공간 만들기'를 하고 있는 어린이
 9. '찰흙으로 공간 만들기' 체험
 10. 어린이의 작품을 심사 중인 심사위원들(좌로부터 대한 건축사협회 김득수 감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이화순 국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의중 부회장)
 11. 수상한 어린이(문서윤)에게 시상 중인 김의중 부회장
 12. 시상식에서 어린이(이채은)와 함께한 이화순 국장

암사동 니은자 집

AMSA-DONG '∟'-HOUSE



설계자 | 이관직 KIRA |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김수근의 공간연구소에서 건축수업을 시작, 이공 건축의 소장을 거쳤다. 대표적인 건축 작품은 과천정보과학도서관, 하비 에르국제학교, 영남대학교60주년기념관, 스탠포드호텔서울, 능동로텐에 이빌딩 등이 있고, 건축화담(建築畵談)이라는 드로잉북을 공저로 내기도

• 설계팀 : 권재영(총괄), 한웅식, 최유민, 김정래, 이삼화, 김윤수, 한소영, 김리태, 김이정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사림구조컨설턴트 - 기계설비분야 : (주)삼우엠이씨 - 전기분야 : (주)신우기술단

건축주 | 최병권, 이진화 시공자 | 건축주 직영공사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69-7번지

주요용도 | 단독주택-1가구

대지면적(Site Area) | 357.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77.10㎡

연면적(Gross Floor Area) | 205.3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61%

용적률(Floor Area Ratio) | 57.52%

규모(Building Scope)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스타코 마감, 정선대리석, 적삼목, THK0.7 ZINC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6 \sim 2012. 0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4 \sim 2013. 01

사진(Photographer) | Chae, Su-ok / Byun, Jong-suk

Client | Choi, Byung-kwon / Lee, Jin-hwa

Architect | Lee, Kwan-jick

Project team | Kwon, Jai-young(PM) / Han, Woong-Sic / Choi, Yu-min / Kim, Jung-rae Lee, Sam-hwa / Kim, Yun-su / Han, So-young / Kim, Lee-tae / Kim, Ee-jung

General Contractor | Direct management of Client

Location | 269-7, Amsa-dong, Gangdong-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alim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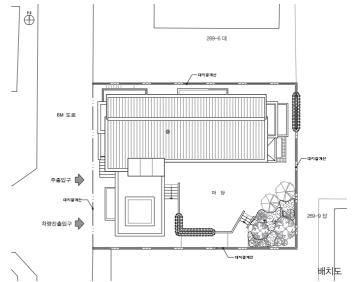
HVAC & Electrical Engineer | Samwoo MEC

Electrical Engineer | Sinwoo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Stucco Finish, Jungsun-marble, Red Cedar, Zin









주택에서 건축주는 다른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게 실사용자이며 소유자이다. 건축주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바람을 건축화하여 찾아주는 과정이 주택설계이다. 그 바람은 형태, 기능, 공간이 복합된 것이다. 암사동 주택은 많은 부분이 설계자의 입장에서 제안되었고, 이것을 건축주는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거나 수정 제안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그것은 흥미롭고 행복한 과정이었다.

주택에서 차양과 처마는 빗물의 처리와 햇빛의 조절을 위한 전통적인 기능적해결이 형태적인 이미지로 정착된 중요한 요소이고 평지붕 또한 서구적 생활방식과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암사동 주택에서는 1.5층의 연못(혹은 작은 풀)이 있는 평지붕의 박스 형태와 차양과 처마를 가지고 있는 2층의지붕 형태를 조합하는 숙제를 경계부분에 계단실의 수직요소로 연결하면서 'ㄴ' 자집으로 배치하여 풀어냈다.

주택계획에서 배치는 공간적이기 보다 기능적인 문제다. 울담이나 행랑채를 넘어 마당을 거치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주거의 배치를 주차장 피로티를 거치도록

입체적으로 계획했다. 이미 수 십 년 동안 익숙해진 현관은 길 쪽에 두었다. 길과 북쪽을 'ㄴ'자로 건물로 경계를 만들면서 필로티 밑으로 길에서 들여다보이는 마당을 두었다.

수직적인 방들의 배치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반층씩 물리도록 구성했다. 거실과 손님방이 0.5층 높이(도로보다 1.5m 높은 1층)에 기본 평면을 이루고 안방은 1.5 층, 아이방과 거실 상부에 오픈된 회랑형 서재와 자녀방은 2층에 위치한다.

계단실이 전체 조형을 묶어주는 수직의 형태요소이고 공간에 있어서는 'ㄷ'자로 형성된 2층 복도와 회랑형 서재가 거실을 내려다보도록 구성되고 벽난로가 상하의 공간을 수직요소로서 묶어주고 있다.

암사동 주택은 목조도 아니고 전통적인 기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적 주택의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배운 서구적 구법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 안에 녹아 있는 형태와 기능과 공간을 꿈꾼다. 遺



1. 현관 2. 거실 3. 주방 4.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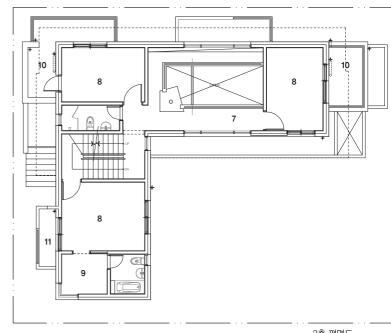
7. 복도

10. 테라스 11. 발코니

5. 창고 6. 서재/응접실

8. 침실 9. 드레스룸

____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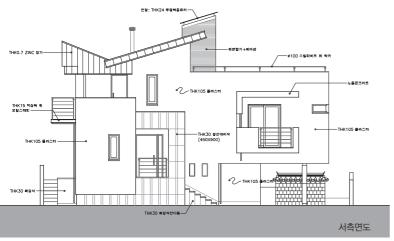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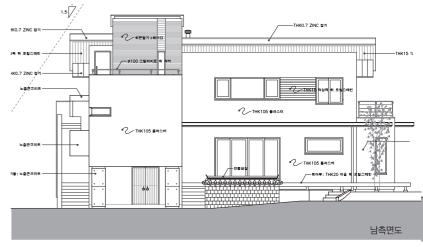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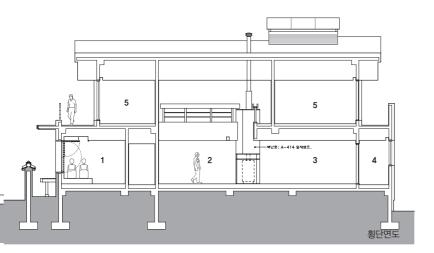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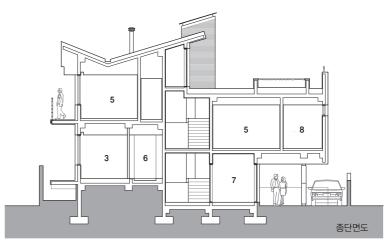
1. 서재/응접실 2. 거실

5. 침실 6. 현관

7. 창고 8. 드레스룸

3. 주방/식당 4. 다용도실





<mark>힐스나인 빌리지</mark> HILLS NINE VILLAGE



설계자 | 임희선_KIRA |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후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에서 POSIGRADUATE DIPLOMA 졸업했다. 서한건축, 무영 건축에서 실무를 거쳐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대표건축사로 재직 중이며, 현재 노원구 건축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설계자 | 정재욱 대한건축사협회 전문회원 | 단국대학교 건축대 학 건축학과 교수

미국 UC 버클리대 건축학과를 졸업, 하버드대 대학원 GSD에서 M.Arch.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보스톤 캠브리지에서 수년간 건축설계 실무를 수 행, 현재 미국 메사츄시스주 등록 건축사이다. 주요작품으로는 고속철도 부산통합역사 국제현상 당선안, 한국 루터회관 등이 있다.



설계자 | 김은미_대한건축사협회 전문회원 | 한양대학교 공과대 학 건축학부 조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미국 Pratt Institute에서 건축학 학사. Columbia University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제일 모직 한남동 사옥 입면, 김포 상원축산 식품 사업장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지현, 김선욱, 공형배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반석TVS

- 기계설비분야 : ENG에너지디자인연구소

- 전기분야 : 삼우전기

- 토목분야 : 에스텍컨설팅그룹

건축주 | 유화자 외 1인 시공자 | (주)제효

대지위치 |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9-5

주요용도 | 공동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800.40 m²

건축면적(Building Area) | 376.09㎡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76,8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6.9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9.99%

규모(Building Scope) | B2 - 6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샌드스톤, 부식동판 돌출이음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2, ~ 2011, 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10. \sim 2012. 12.

사진(Photographer) | Kim, Jeong-hyun



Client | Yu, Hwa-ja

Architect | Lim, Hee-sun

+ Jeong, Jae-uk / Kim, Eunmee

Project team | Kim, Ji-hyun / Kim, Seon-uk / Kong, Hyeong-bae

General Contractor | JEHYO

Location | 799-5,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Structure I R.C

Structural Engineer | ENG Energy Labora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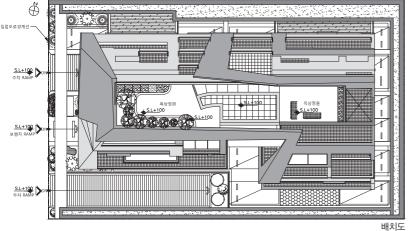
HVAC & Electrical Engineer | ENG Energy Laboratory

Electrical Engineer | Samwoo Electric

Civil Engineer | Stecat Consulting Group

Finishing Materials | Sandtone, Copper Plate Corro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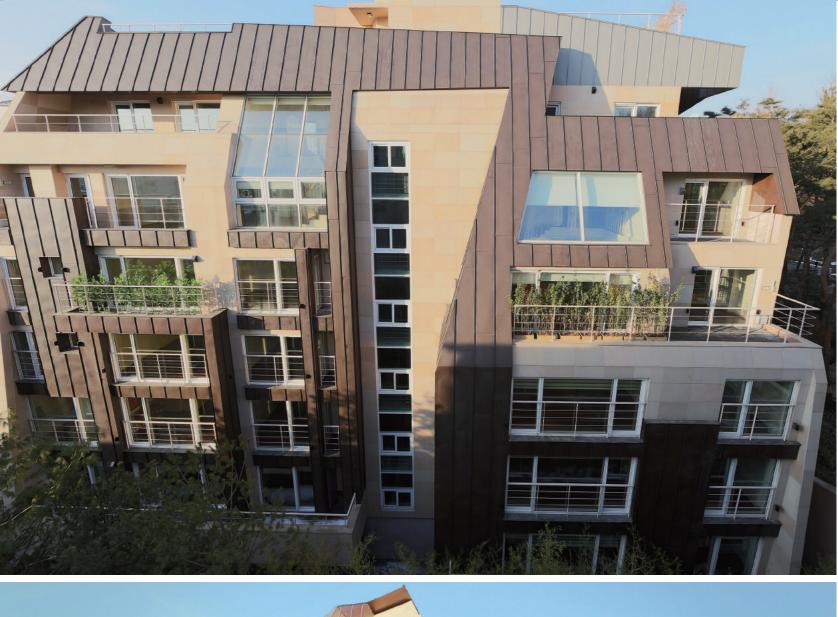


힐스나인 빌라는 서초구 고소득층 지역의 중심을 상징하는 서리풀 공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힐스나인과 같은 밀도를 요구 받는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종종 건축 법규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능력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사선제한과 같은 규정은 설계가 시작도 하기 전 그 볼륨의 크기와 형태를 만들어 버리며, 게다가 그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치는 설계이전 이미 건축 평면을 확정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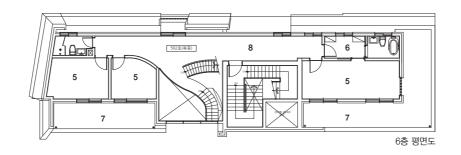
그렇기에 이 프로젝트는 이미 주어진 조건들과 보이는 것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앞서 말한 문제로 이미 정해진 조건과 새로이 만들어 질 투명 표면의 상호 작용이 이 건물 외피의 조화로 보여지게 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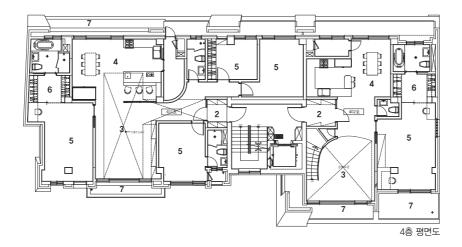
각 세대들은 최대화 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조직 하였고, 그것들의 건물 외피의 일부는 내부 공간 연속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커다란 띠로 묶여져 있다. 이띠의 배열은 법규들에 의해 이미 정해진 상황과 평면에 의해 규정된 투명 오프닝 표면 사이에서 상호 작용을 유발한다. 산화 구리판으로 덮은 이 띠들은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잘 인식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정형화 되어 뚫여 있는 투명오프닝들을 활기 띄게 만들어 주어, 이 건물이 도시에서 그 스스로의 존재감을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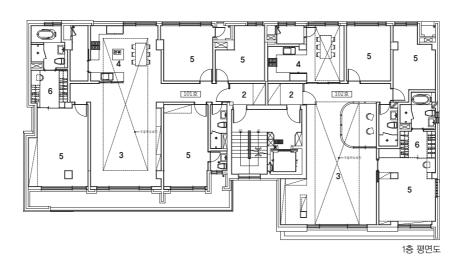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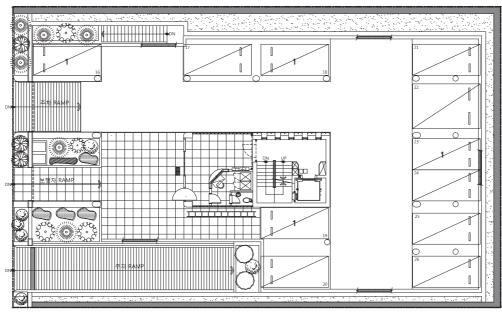


- 1. 주차장
- 2. 현관
- 3. 거실
- 4. 주방
- 5. 침실 6. 드레스룸
- 7. 테라스
- 8.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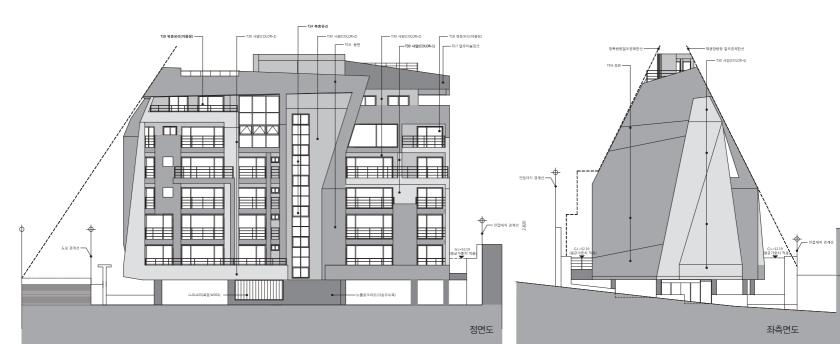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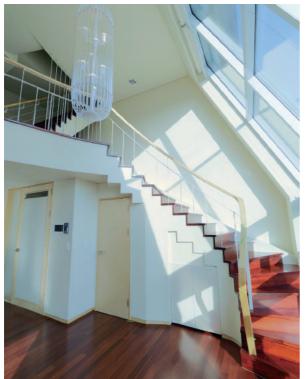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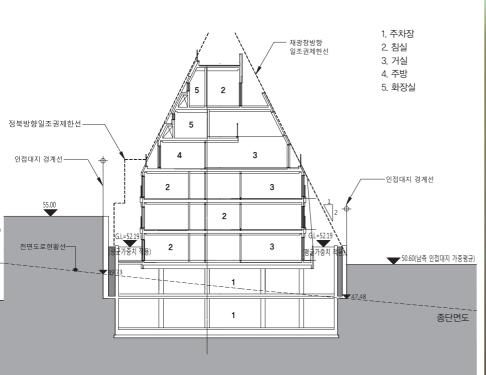














폴라리온 POLARION SQUARE



설계자 | 김창길_KIRA |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업으로는 번동 글로리타워, 부산 락앤스티치공 장. 박순용정형외과, 춘천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다. 수 상 경력으로는 2011년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년한국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년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년신진건축 사상을 수상하였다

• 설계팀 : 김덕균, 김승렬, 박준홍, 이한재. 박치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공간기술단 + 미래ISE + 이재원 - 기계 · 전기설비분야: ㈜천일이앤씨

- 토목분야: 나우엔지니어링

건축주 | ㈜폴라리온 시공자 | 세한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717-4 주요용도 |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31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370.01㎡

연면적(Gross Floor Area) | 6,675.8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20%(법정: 60%)

용적률(Floor Area Ratio) | 200.39%(법정: 230%)

규모(Building Scope) | B1 - 8F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THK. 24 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7. 29 \sim 2011. 09. 2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4. 22 \sim 2011. 09. 02

사진(Photographer) | Lee, Hee-seung

Client | POLARION Corp.

Architect | Kim, Chang-gil

Project team | Kim, Deok-gyun / Kim, Seoung-youl / Park, Joon-hong /
Lee, Han-jae / Park, Chi-seon

General Contractor | SEHAN Corp.

Location | 717-4, Banwol-dong, Hwaseong-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 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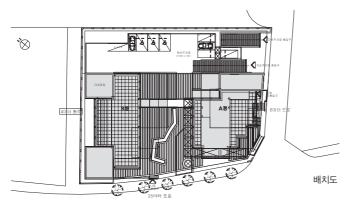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SPACE Construction corp. + MIRAE ISE + Lee, jae-won

HVAC & Electrical Engineer | CHEON IL E&C corp.

Electrical Engineer | CHEON IL E&C corp.

 ${\bf Civil\ Engineer\ |\ NOW\ ENGINEERING\ corp.}$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THK. 24 low-E pair glass



폴라리온 스퀘어 프로젝트는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동탄 신도시와 병점 신도시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아파트 주거단지와 소규모 근린생활권역으로 도시 계획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시점에 홀로 나대지를 띠고 있는 대지로 근린생활시설의 배후에는 행복공원이라는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본 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린생활시설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 남아 있는 대지는 공원을 도로에서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컨셉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계자의 제안에 건축주도 도시의 공공성의 의미를 알고 흔쾌히 받아 들여 주었다. 건축물의 배치방법은 대지의 중앙을 비우고 대지의 양측에 별개의 2동으로 건축물을 분리하여건축함으로써 중앙의 개방된 공간으로 항상 공원의 전경을 보행자 및 차량들이바라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건축물의 평면 계획은 사옥으로 사용 할 공간과 함께 입주하여 공간을 사용 할 협력업체들이 필요한 공간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이를 대지의 형상을 반영한 결 과 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적정 모듈(26 x 26)을 추출하여 기본 모듈이 2개, 4개, 8개 등으로 이를 세포 분열 또는 확장하여 모듈이 합쳐져서 하나의 공간이 되 었다. 또한 두 개의 공간이 분리되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관습에 순응하는 형태 의 매스로 구성되었고, 하나는 물리적인 관습에 역행하는 형태의 매스로 구성 하여 건축물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형태 에서 벗어나서 보다 드라마틱하고 유기적인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두 개로 분리되어 각각 세워진 건축물이 최상층에서 대지의 형태를 띤 스 라브 형태의 구조물에 의해 공중 필로티를 구성하여 최상층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도록 구성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건축물로 구성해 보았고 또 한 2개의 건축물 사이에 공중 브릿지를 연결해 서로 왕래 할 수 있도록 계획하 였다. 이는 메인으로 쓰이는 건축주의 사옥으로 쓰이는 우측 건물과 협력업체 들이 사용하는 좌측 건물에서 회식, 전체 미팅 등 다양한 행사를 고려하여 최상 층에서 서로 만나서 담소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는 건축주인 회사 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비젼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 수 있다. 두 개의 건물 사이 중앙에는 8층까지 오픈된 공간으로 후면에 조성되어 있는 행복공원을 가리지 않고 비워둠으로써 지나가는 보행자가 공원의 전경을 조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두 개의 건축물 사이의 비워진 외부공간에는 조경공간, 수공간, 다양한 열주의 배치 등의 옥외 조형물을 여러 곳곳에 다양하게 배치하여 공원과의 연계성을 이루도록 계획하여 공원과 대지 내 옥외 조경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원의 연속성을 대지 내에서 구현함으로써 사유적 개념의 대지가 개인의 소유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도시적인 차원에서 공공성의 개념도 포함한다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존재하는 이념을 구현해 보았다. 이는 상업적인 욕구를 더 많이 요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건축주의 혜안과 통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는 앞으로 건축이 발전하기 위하여 더욱 지양되어야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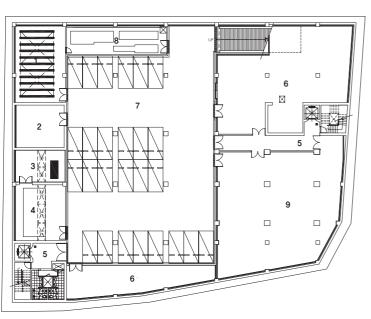
특히 수공간의 경우 수공간 바닥이 투명유리로 구성되어 자연 채광이 지하 업 무공간과 주차장에 유입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계획하 였다

건축물의 입면계획은 평면의 모듈이 분화되어 확장하듯이 전면의 창호 컨셉은 최소 단위인 셀을 모티브로 하여 가로, 세로로 확장 분화하는 모습을 역동적으 로 표현해 보았다. 외부 마감은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였는데 건축물의 디자인 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 할 경우 자칫 산만한 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절제를 통한 디자인의 표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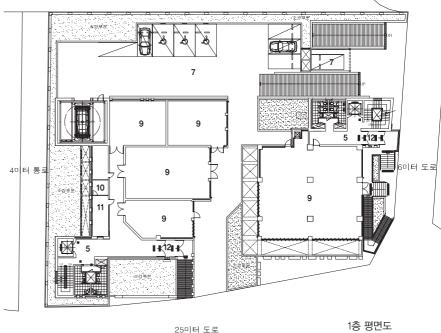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5미터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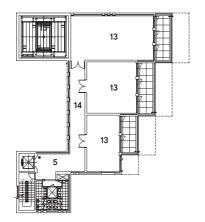


- 1. 지하저수조 2. 공용창고 3. 발전기실 4. 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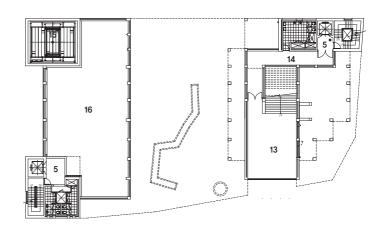
- 5. 홀 6. 공용창고 7. 주차장 8. 펌프실

- 9. 근린생활시설 10. 방재실 11. 관리실 12. 전실

- 13. 업무시설(사무소) 14. 복도 15. 주차타워 16. 공용필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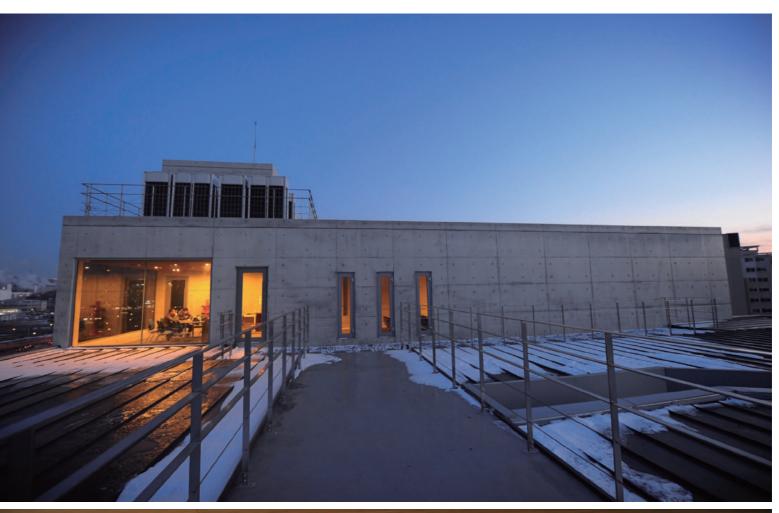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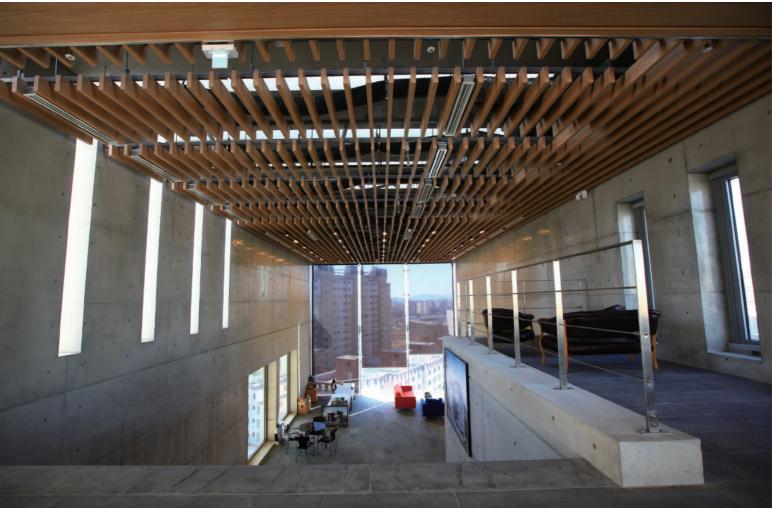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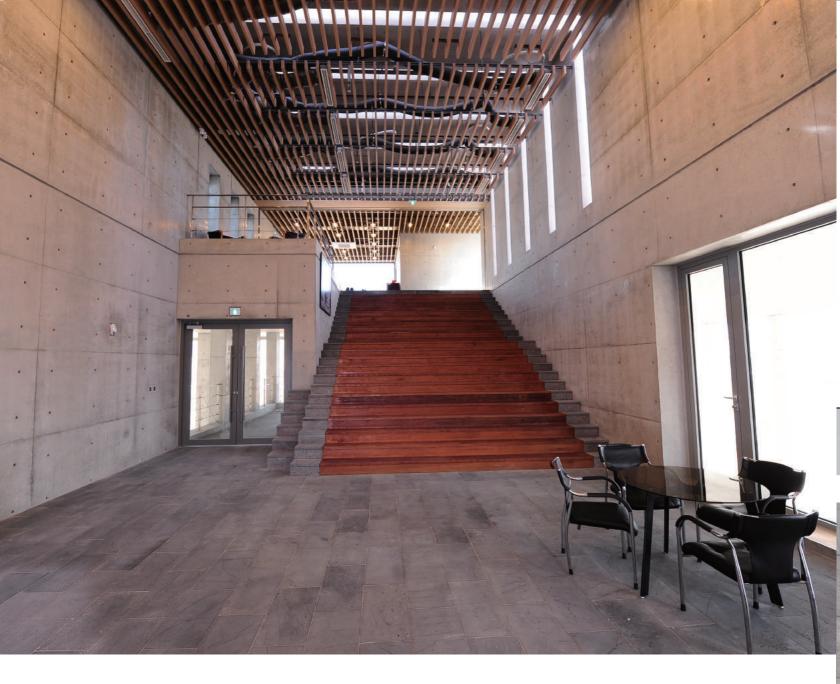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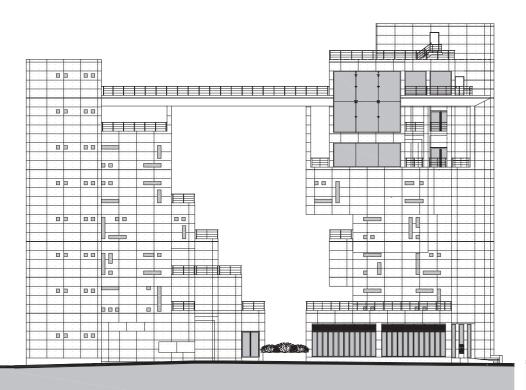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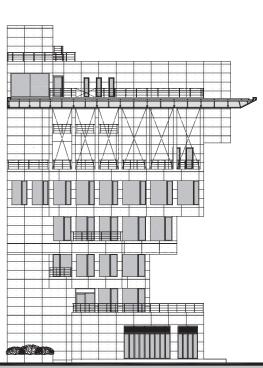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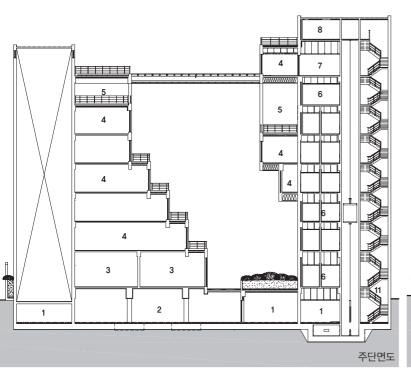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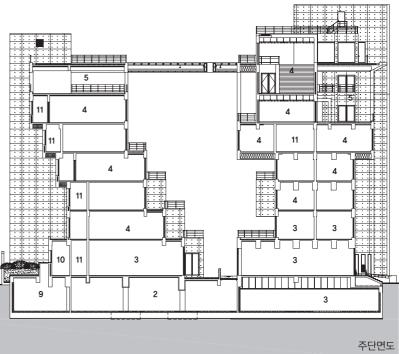
공용창고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4. 업무시설(사무실) 5. 필로티

6. 화장실

7. 연구실 8. ELEV. 기계실 9. 전기실 10. 방재실 11. 계단실









구인사유물전시관 GUINSA RELICS MUSEUM



설계자 | 천국천 KIRA | (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 재학중 이며, CG사무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 무를 익혔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청년건축사유니온 및 건축사한옥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건축에서 대표를 지내다 법인 을 분리. ㈜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여 대표로 재직 중이다.

• 설계팀 : 이영모, 이승락, 장동훈, 김종재, 양민지

• 전문기술협력

구조분야 : (주)서울구조설비분야 : (주)엘림전설

- 토목분야 : (주)에스피엔지니어링 - 전시분야 : (주)이디인터내셔널

건축주 | 대한불교 천태종

감리자 | (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동해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65번지 외 3필지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대지면적(Site Area) | 10,73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002.32㎡

연면적(Gross Floor Area) | 9,467.8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7.98%

용적률(Floor Area Ratio) | 67.27%

규모(Building Scope) | B1 - 4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사암석붙이기, 사고석쌓기, 화강석잔다듬, 한식기와잇기 내부마감-화강석물갈기, 대리석, 도기질타일, 수성페인트, 기타 전시마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1, 10. \sim 2011,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3, 10. \sim 2012, 11.

사진(Photographer) | CHUNGAM DITOGRAPHTY

Client | The Korean Buddhist Cheontae Order Guinsa

Architect | Chun, Kuk-chun

Project team | Lee, Yeong-mo / Lee, Seung-rak / Jang, Dong-hoon Kim, Jong-jae / Yang, Min-ji

General Contractor | Dong Hae Construction

Location | 65, Baekjari, Yeongchun-myeon, Dangyang-gun, Chungchungbuk-do, Korea Structure | R.C + S.R.C

Structural Engineer | Seoul Structural Engineers Co., Ltd.

HVAC & Electrical Engineer | ELLIM Consultant

Exhibition | EDINTERNATIONAL Co.,Ltd.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Marble, Granite Stone, Paint, Tile
Exterior_Granite Stone, Korean roof tile

프롤로그 "10여년의 여정"

구인사 유물전시관이 10여년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이는 천태종과 한국불교 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 대업이 이룩된 것이며, 수 십 개의 사찰이 건립된 것 이 상으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유물전시관은 천태종 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역 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 유물들이 상설 전시되고 중국, 일본, 티벳, 몽골의 불교유산까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구인사 유물전시관은 불교사의 시간과 공간이 응집되어 현대인에게 그윽한 깨침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법향을 후손에게 길이 전하는 곳이 된다. 때문에 유물전시관은 또 다른 이름의 도량이고, 또 다른 기능의 역사 교육 수행이 결합된 공간이다. 상설 전시될 유물 가운데는 국보 제257호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과 보물 제1162호 '묘법연화경삼매참법'을 비롯하여 조각과 공예, 회화, 서화 등다양한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들이 망라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이 있듯이, 유물전시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선지식들의 지혜와 자비, 고매한 예술적 정취와 깨달음의 향기를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미래의 풍요로운 문화적 자양이 되어 인류를 번영시키는 공덕이 될 것이다.

구인사 유물전시관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유물은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후손에 전승해야 할 민족의 맥박이며 인류의 자산이다. 따라서 구인사 유물전시관은 소장된 유물들을 교육과문화 컨텐츠로 활성화하여 단양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불교문화의 시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인사 유물전시관은 천태종과 단양군, 충청북도 그리고 정부의 합심에 의해 탄생된 뜻 깊은 문화공간이다. 보다 완벽한 전시관을 짓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 했던 10여년의 공사기간 중 많은 전문 학자들의 자문이 있었고, 종단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고민과 합심이 있었다. 유물전시관의 개관은 그 모든 공력의 결 실이며 영광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전시관에 깃든 큰 원력과 깊은 열정 그리고 밝은 비전이 어우러져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각계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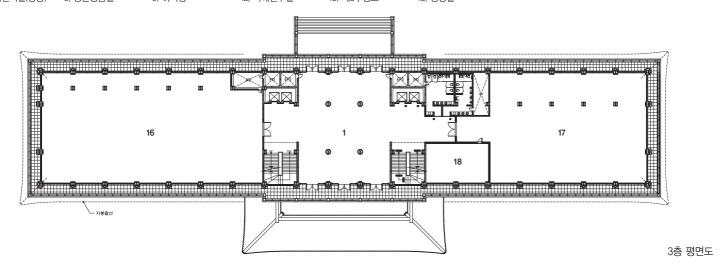
건축계획 "초기안의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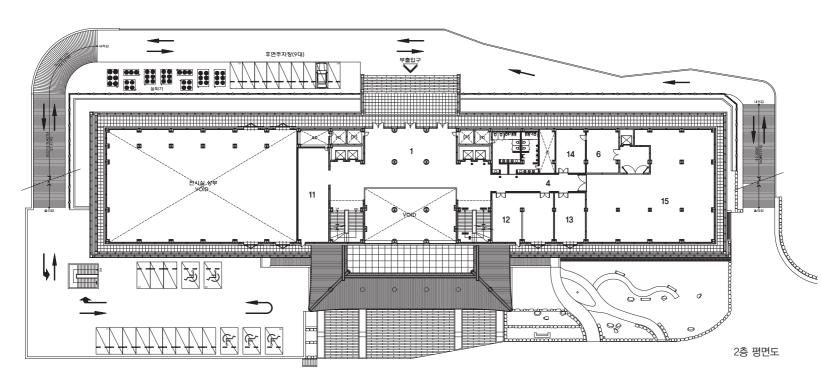
전통 사찰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증에 의거 전통적인 내·외관을 고수하며, 건물의 형태 및 색채는 역사적인 사실과 주변의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재료는 가능한 한 자연재료를 사용하며, 공공영역의 시설은 건물의 내구성 및 내부공간의 각 특성을 살려 계획하고 전통양식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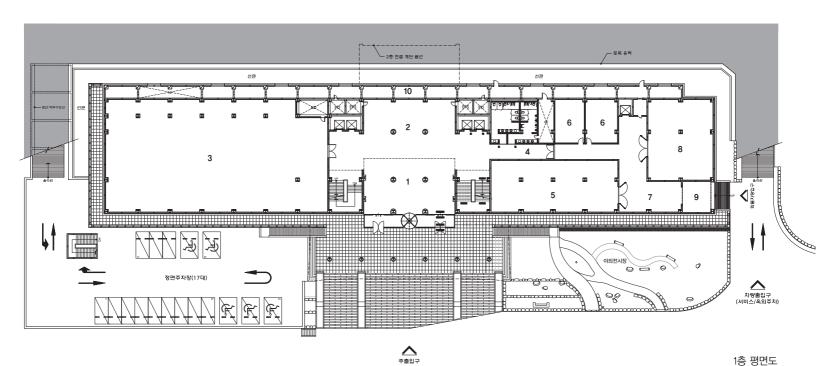
초기안의 배치, 규모, 형태의 개념은 불교문화 박물관임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가람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차용했다.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계단식 배치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중첩되어 다양한 변화와 공간감을 연출하고 시각적 공간 전이, 중정을 통한 개방감 확보와 각각의 공간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단계 공사 시 산사태로 인하여 후속단계의 공사가 불가피했다. 장기간에 걸쳐 자문회의와 설계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단일건축물로 모든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배치, 규모, 형태로 준공하게 되었으나, 초기안의 무산에 많은 아쉬움이남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앙 앞에서는 참으로 하찮은 인간의 욕망에 불과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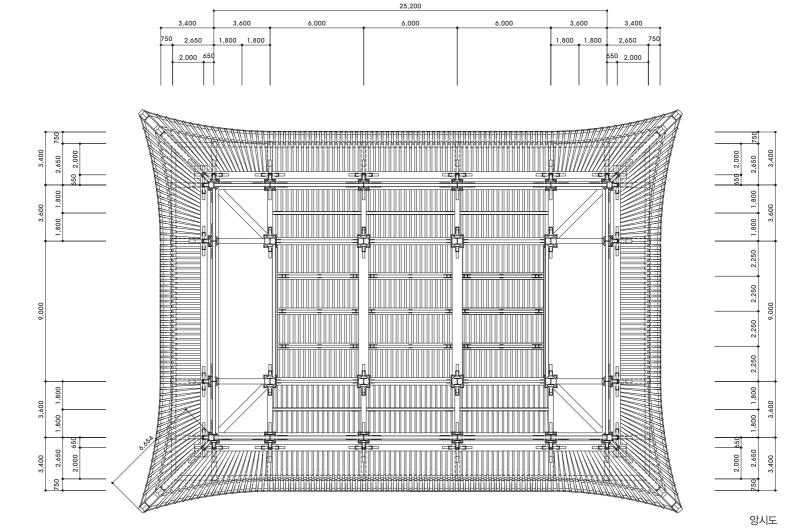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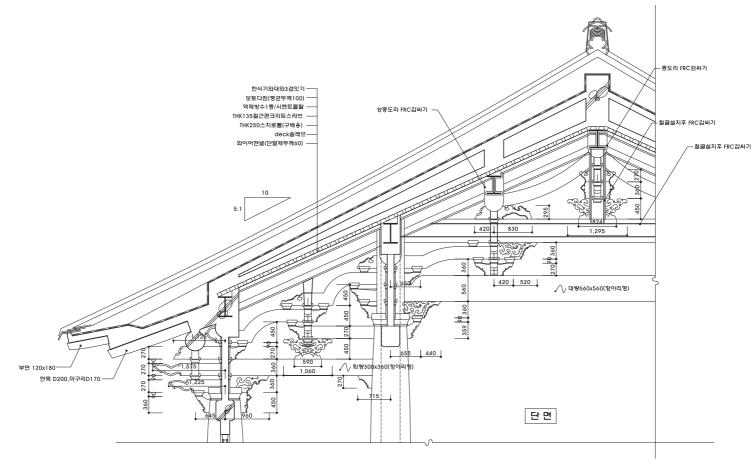
7. 해체포장실 10. 공동구 13. 유물관리부 16. 제1전시실 1. 로비 4. 복도 2. 뮤지엄숍 5. 제1수장고 8. 제2수장고 11. 도서실 14. NAF-3S실 17. 제2전시실 3. 기획전시실(강당) 6. 항온항습실 9. 하역장 12. 학예연구실 15. 제3수장고 18. 영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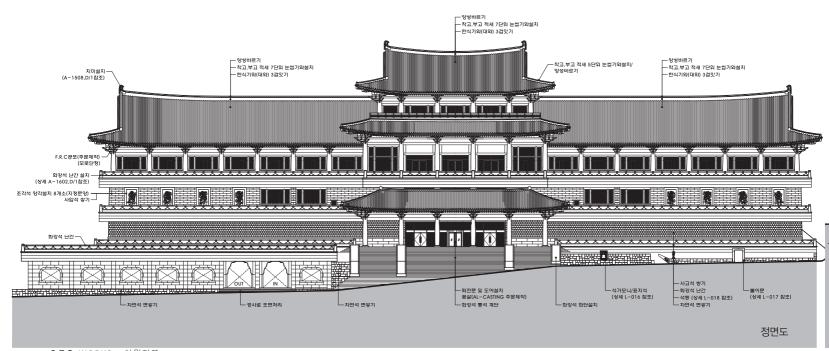




공포부분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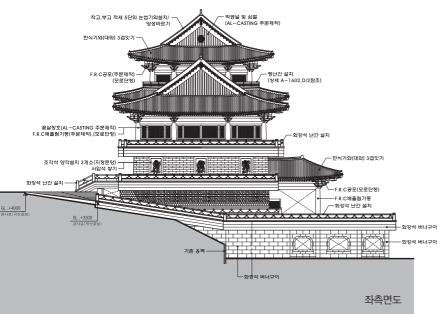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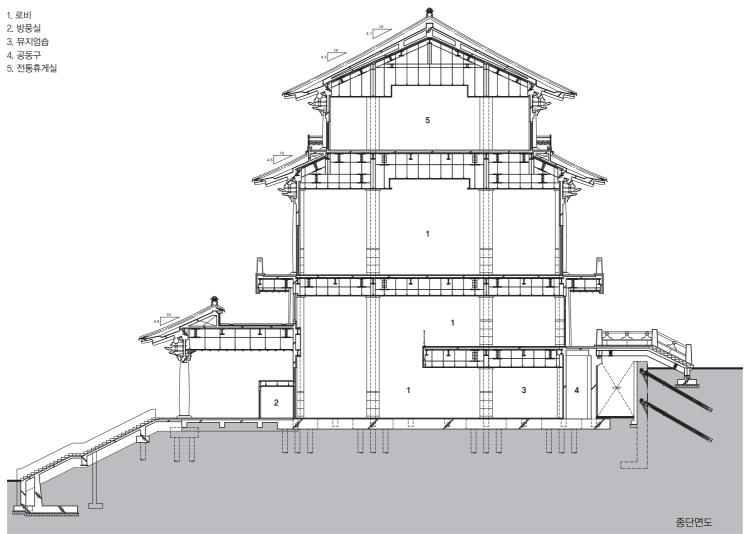






2013 KOREAN ARCHITECTS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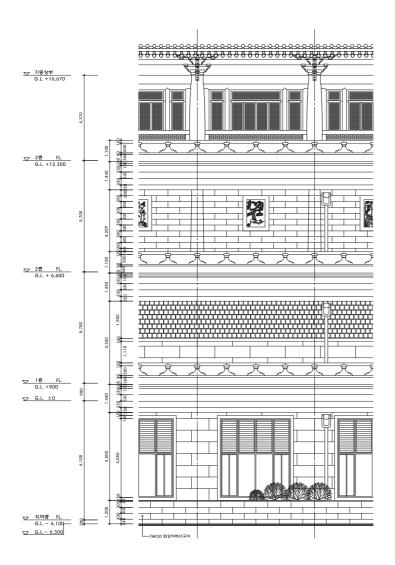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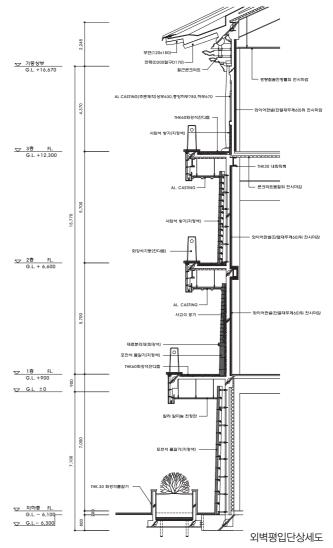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 · 충남지역 대학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AEJEON·CHUNG-NAM CAMPUS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대전 · 충남지역 대학



설계자 | 이병구_KIRA | (주)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15회)를 통해 교육부 건축사무관으로 재직했으며, 전북대학교 학생생활관,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및 초, 중, 고등학교 학교를 비롯 문산우체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연구센터 등의 대표작이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대한건축사협회 교육·정보위원 및 법제위원을 역임하였다.



설계자 | 남민희_KIRA | (주)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현재 (주)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삼우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의 정회원이며 대표작으로는 삼성생명광주사옥, 우송대학교 본관, 진접지구 M타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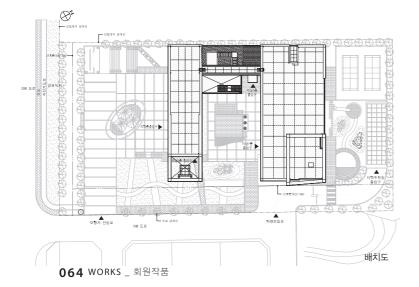
• 설계팀 : 김성호, 안병돈, 류원기, 배영모, 류정효, 이병옥, 남동훈, 김경옥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주)동양구조 - 기계설비분야: (주)대유엠이씨 - 전기설비분야: 한양전설(주) - 토목분야: (주)고려씨티에이 - 조경분야: 토원경관디자인

건축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공자 | 남일건설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710-1
대지면적(Site Area) | 8,264.8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42.29㎡
연면적(Gross Floor Area) | 15,303.8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4,71%
용적률(Floor Area Ratio) | 84,27%
규모(Building Scope) | B2 - 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 알미늄복합패널, 24mm 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5. 07 ~ 2010. 10. 2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3. 15 ~ 2013. 01. 08



Client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rchitect | Lee, Byeong-gu / Nam, Min-hee

Project team | Kim, Seong-ho / An, Byoung-don / Ryu, Won-ki / Bae, Young-mo Ryu, Joung-hyo / Lee, Byeong-ok / Nam, Dong-hun / Kim, Kyoung-ok

General Contractor | Namil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710-1, Yongsan-dong, Yuseong-gu, Daejeon, Korea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Dongyang consulting Engineers Co., Ltd.

HVAC & Electrical Engineer | Dae Yoo MEC Co., Ltd.

 ${\bf Electrical\ Engineer\ |\ Han\ Yang\ Electrical\ Engineering\ Co.,\ Ltd.}$

Civil Engineer | Korea Civil Technical Assistant

Finishing Materials | aluminium conposite panel, pair glass

Ope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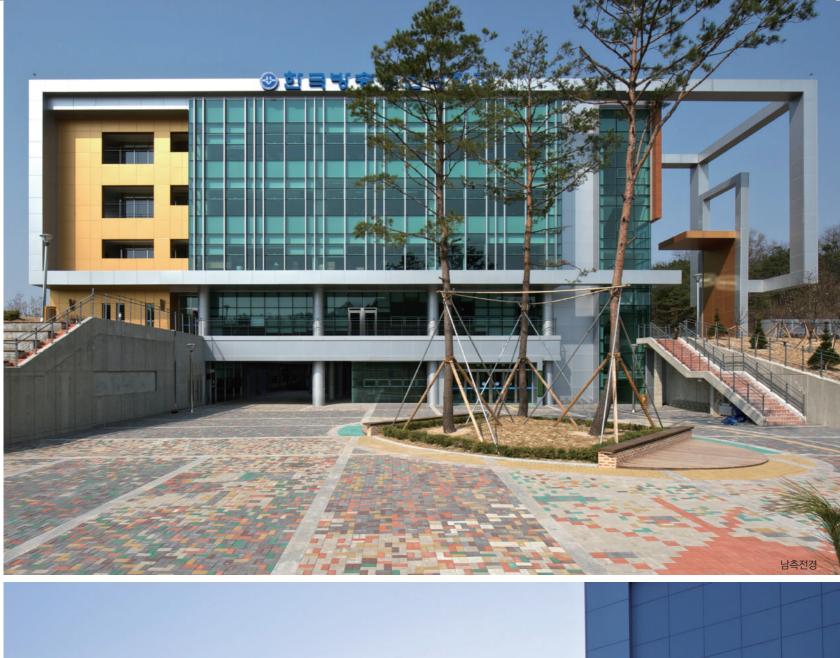
굉장히 건축적인 말로 보이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영문명이다. 설계의 시작이 늘 그렇지만 고민은 '무엇을 담아내고 표현해낼 것인가?' 그 질 문의 답은 학교이름인 OPEN(UNIVERSITY) -개방, 열림- 이라는 한마디에 있었 다. 이 단어가 계획의 주제이자 디테일이 되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열린 계획 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남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긴대지에 공간(건물)을 -그것이 위치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새로운 (외부)공간을 중시하며 - 만들고, 거기에 북쪽이 높아지는 대지의 경사를 활용한 다양한 레벨의 접근과 기능분할을 통한 평면, 단면적으로 개방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이었다. 매스와 입면계획에 있어서도 역시 개방과 소통 그리고 다양성의 포용이 자연스럽게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주제와 방향 설정 하에 각실 - 특히 교실(강의실) - 의 남항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ㄷ'자의 배치를 결정하였다. Zoning은 대지의 경사를 활용, 지하층 전면을 노출시켜 대강당과 학생회관련 시설을 배치하여 접근의 용이성 확보와 동시에 학습영역과의 분리를 꾀하고, 지상층의 전면동은 교수관련실을 배치하고, 후면동에는 도서관과 강의실을 집중시키되 앞쪽에 중정('ㄷ'자 내부의 외부공간)을 마련하여 조용하고도 독립적인 공간을 창출했다. 내부에는 작지만 오픈된 로비, 각 코너부분의 휴게공간 설치로 평면적인 개방과 여유를 만들었고, 연결 브리지에서도 오픈 공간과 조경배치로 숨 쉬는 공간을 이루어냈다. 단면적으로도 진입광장과 대강당,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동일레벨에 존재하는 다르지만 연결된(열린) 공간, 또한 거기서 다시 중정으로 연결되는 통로(옥외계단)의 설치로 수직적인 방향에서의 소통을 실현하였다.

매스와 외관도 유리 커튼월의 외곽에 단순한 형태의 프레임계획으로 다양함의 아우름을 표현하고, 동쪽 도로측의 개방된 프레임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축 적조형을 통하여 주진입구로서의 상징과 함께 개방과 포용, 그리고 환영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외부공간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입, 중정, 후정 등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부지좌측에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스탠드와 무대를 설치하여 옥외학습, 휴식 및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전면광장에는 소나무(상록수) 식재로 늘 변함없이 열려있는 학교를 상징하고자했다.

열려있지만 기능분리가 고려된 공간의 배치, 개방과 소통이라는 일관된 개념을 도입한 평면과 입면, 부지의 레벨에 따른 다양한 접근과 동선연결, 수직적으로 열린 공간의 계획으로 통풍, 채광 등을 해결한 단면 계획 등으로 내외부공간의 다양함과 친환경성을 이루고, 부지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의 이념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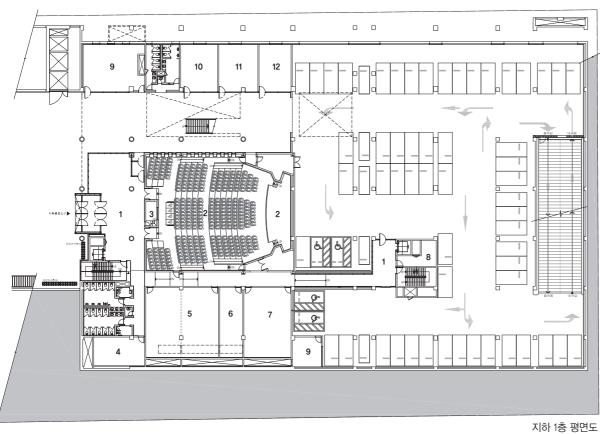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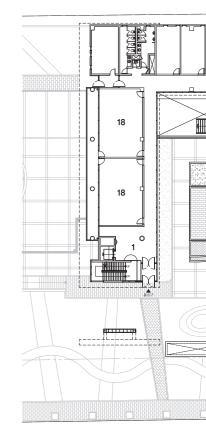


1. 홀 2. 강당(32석) 3. 조정실 4. 물품창고 5. 실험실습실 6. 미디어영상실습실 7. 기악실습실 8. 창고

9. 학교휴게실 11. 학과공동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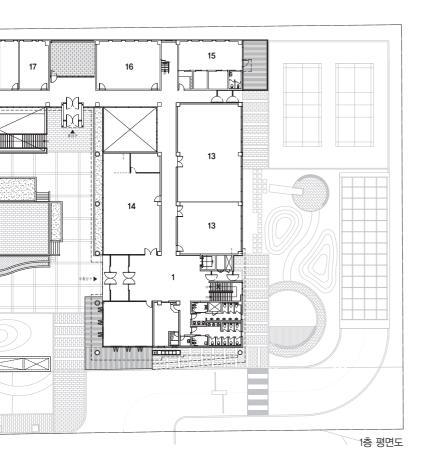
10. 학생회사무실 12. 동아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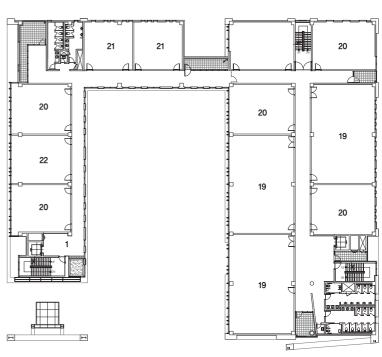






13. 자료열람실 14. 서비스센터 15. 유아방 16. 성적처리실 17. 통신설비실 18. 열람실 19. 대강의실 20. 중강의실 21. 세미나실 22. 교수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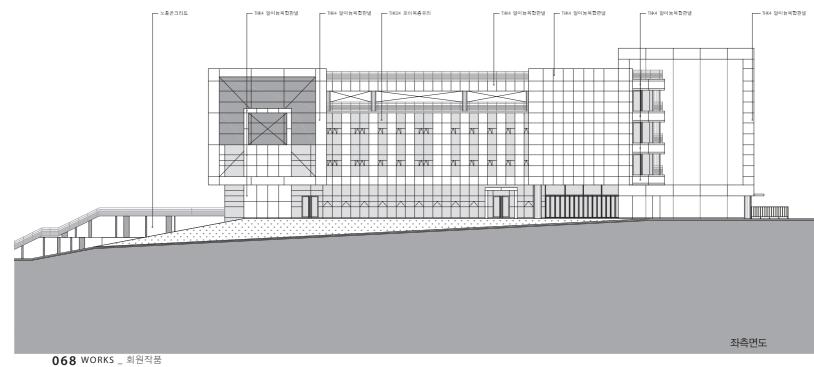




3,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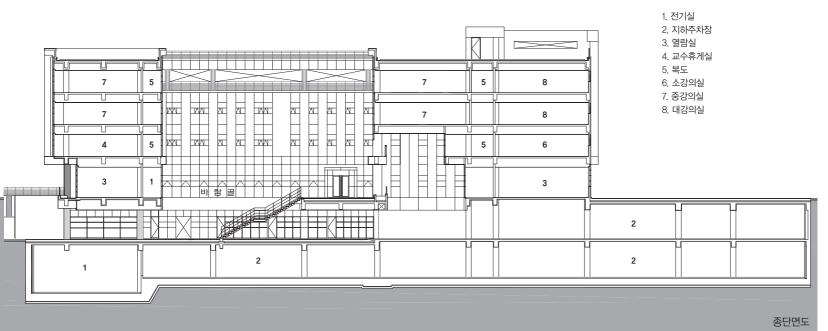














강동문화체육센터 _stdx

KANGDONG CULTURE SPORTS CENTER

발주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

설계자: 박종석 KIRA | (주)대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고경환, 권용철, 도영조, 김현진, 김인진, 서미정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주)구조기술사 연합법인

전기: 우보엔지니어링설비: 동남기술사사무소토목: (주) 세연 E&C

- 조경 : 조경공방 S<u>.</u>U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892-13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비행안전5구역

주요용도운동시설대지면적1,650.00㎡건축면적933.25㎡연 면 적1,427.23㎡

건 폐 율 56.56 % (법정 : 60% 이하) 용 적 률 86.50% (법정 : 400% 이하) 구 조 철골조, 철근 콘트리트조

주요마감 외부-징크금속패널, 무기질섬유압축패널, 로이복층유리

'강동문화체육센터'는 근린공원, 작은 도서관, 문화동(주민 자치센터, 어린이집, 문화센터) 건립과 더불어 문화 공간이 부족했던 강동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 생활의 장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 개념

길을 따라 계획부지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면, 이 길의 연장선과 계단이 서로 만나면서 건물의 입구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주 공간(체육관)을 1층이 아닌 2층에 배치함으로 대지와 건축물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경사면을 만들게 된다. 경사면을 과감하게 외부공간과 연결하게 만듦으로써, '강동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방향을 결정지어준다. 경기장의 관람석 또한 이 경사면(계단)의 연장선 위에 있다. 수평의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더 잘 보기 위함이다. 즉, 이어진 경사들을 통해 수평의 경기장으로 집중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듯 '강동문화체육센터'는 운동공간 안에서의 행위자의 움직임뿐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관람객들의 움직임, 그리고 연결성을 가지는 공간 자체의 움직임을 역동성 있게 표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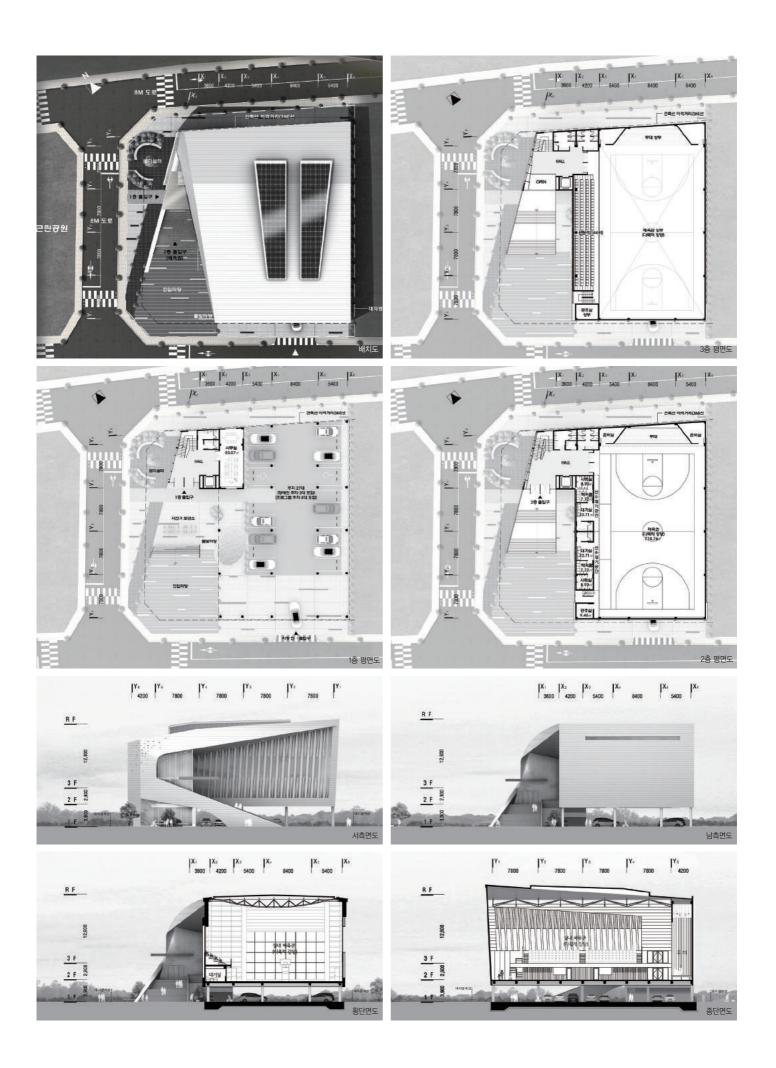
배치계획

연계성 : 주변 근린공원,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집, 문화 센터, 야외 체육시설 등의 시설 과의 연계, 문화체육관련 복합클러스터 형성.

접근성 : 도로에서 주 공간 체육관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마당과 2층으로 연계된 수직 동 서 배치

방향성: 체육시설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빛의 방해를 받지 않는 남북방향의 배치(역광방지) 방향성이 없는 기존 주거군의 분리 배치하여 urban screen의 역할.

상징성 : 오랜 주거지역이므로 체육·문화센터에 대한 인지성을 높여 줄 상징적 매스, Landmark를 통한 강동지역의 중심성 구축. 間





강동문화체육센터 _ 우수작

KANGDONG CULTURE SPORTS CENTER

발주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

설계자: 이창환, 김진식, 강동민 KIRA | (주)토담 건축사사무소 조극래 대한건축사협회 전문회원 | 대구카톨릭대학교

설계팀 : 방정호, 이영주, 김현중

전문기술협력

구조: 박대흠(주. 예우구조안전기술원)전기설비: 조성훈(서한컨설탄트 .주)기계설비: 김제철(주. 광명설비연구조)

– 토목 : 정현웅(성진토목)

- 조경 : 장해정(장해정랜드스케이프)

- C.G : DNA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893-13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비행안전5구역

주요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1,650,00㎡ 건축면적 981.74㎡ 연면적 1,408.84㎡ 건폐율 59.49%

용 적 률 79.72%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외부-AL복합패널, 복층유리, 합성목재패널

The Memory of LOCOMOTIVE "열차의 기억"

지금은 사라져 없어진 철길……. 그리고 홀로 남은 역사…….

우리는 대지가 가졌던 기억을 되살리려 한다. 강동문화체육센터의 존재는 대지의 기억을 품고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배치계획

계획 예정중인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구 동촌역의 폐선로의 역사와 정면성 및 향을 고려한 남향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에너지효율 법규적용 등 충분한 대안 검토를 통한 합리적 이고 기능적인 계획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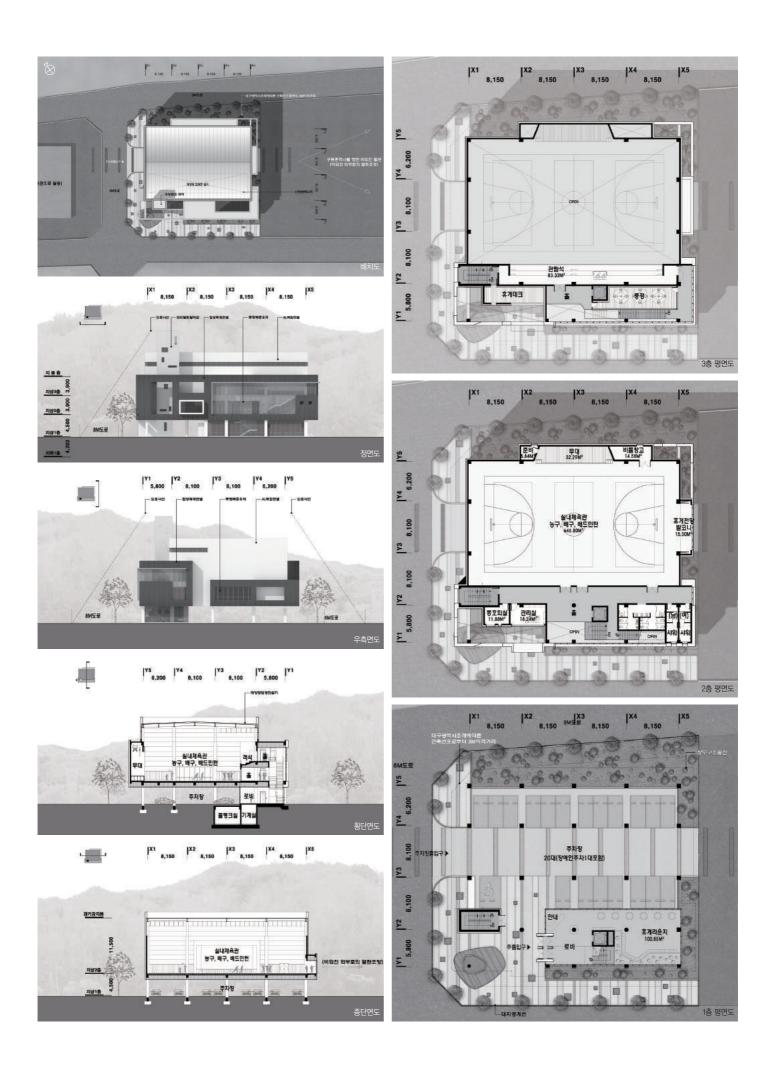
평면계획

지하1층 - 전기 및 기계설비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최소인원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함.

지상1층 - 향후 지어질 건물과의 연계를 고려하며 주차장을 필요에 따라 소통의 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휴게라운지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상2층 -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과 휴게전망 발코니를 계획하여, 이용자들 이 자연경관 속에서 생활스포츠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자연환기가 유리하도록 계획하였다.

지상3층 - 관람석은 장애인 및 관람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터와 인접하여 장변으로 배치하였으며, 휴게데크 및 중정을 배치함으로써 관람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圖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_당선작

JEJUSI ARA-DONG COMMUNITY CENTER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계자 : 김상언 KIRA | 건축사사무소 담 설계팀 : 강진수, 강동휘

대지위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54B 6L지역/지구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063,30㎡ 건축면적 587,85㎡ 연면적 1,783,41㎡ 건폐율 55,2854% 용적률 121,1455%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외부-노출콘크리트마감, 고밀도목재패널마감, 제주판석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자연과 도시와 사람이 공존하는 아라동의 새 터전을 계획하다

건축 속에서 구현되는 아라순력도(我羅巡歷圖)

- 아라동의 상징인 산천단 곰솔을 주요 매스에 펀칭된 고밀도압축패널을 이용하여 재현.
- 자연스런 외부동선을 따라 아라동의 상징 및 명물을 담은 정보를 건축물과 일체시켜 소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편안한 공공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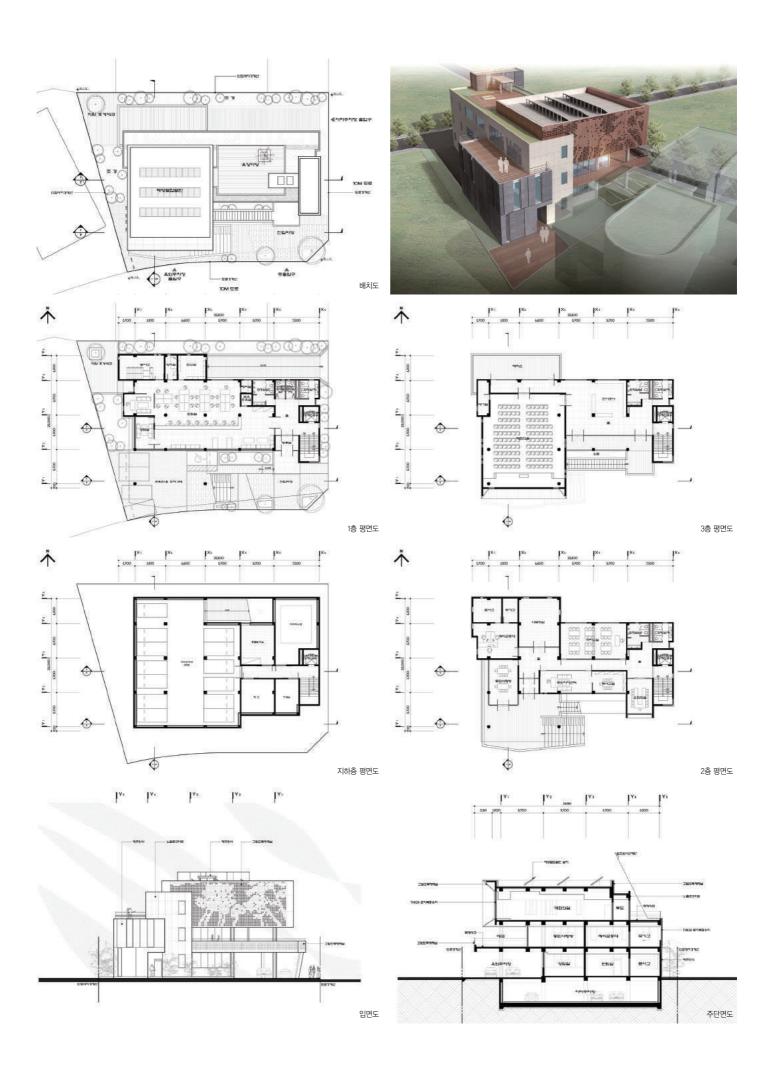
 대지안의 진입마당은 들어올려지는 켜와 판으로 자연스러운 동선을 따라 2층과 3층으로 연장되어 진입공간이자 외부공간이 되고, 한라산과 오름을 조망하는 전망대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작은 야 외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교류와 소통을 통해 도시와 사람을 잇는 주민소통의 공간

- 진입광장을 통해 2층 및 3층으로 연장된 외부공간은 주민의 휴식마당으로 계획.
- 2층의 동민사랑방은 외부공간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
- 3층의 대강당은 주민들의 결혼식 등도 가능한 크기로 계획.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내부공간 사용이 가능한 매스계획

- 상징적 매스계획으로 인지성 증대 및 랜드마크로서의 중심성 구축.
- 과도한 창호계획을 자제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층별 조닝을 통해 효율적인 내 부공간 구성. 圖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_ 우수작

JEJUSI ARA-DONG COMMUNITY CENTER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계자 : 홍광택 KIRA |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양희준 KIRA | (주)건축사사무소 신우

설계팀: 송현규, 강경훈, 오난영, 김신우, 김찬우, 진미경

대지위치 제주시 아라1동 54B 6L (구 아라1동 1644-4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주요용도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063,30㎡ 건축면적 607,85㎡ 연 면 적 1,759,77㎡ 건 폐 율 57,16%

용 적 률123,24%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외부-제주석(30X150)루버, 유로스타코, T24 복층유리

지역주민의 쉼터

아라동 주민센터의 곰솔 정원에는 소나무 식재를 계획하였다. 산천단에 있는 곰솔을 연상케하는 소나무는 제주 루버 사이를 뻗어나와 바람에 흔들거릴 것이다. 이러한 소나무 그늘 아래서 지역주민의 놀이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아라동 주민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다.

입면패턴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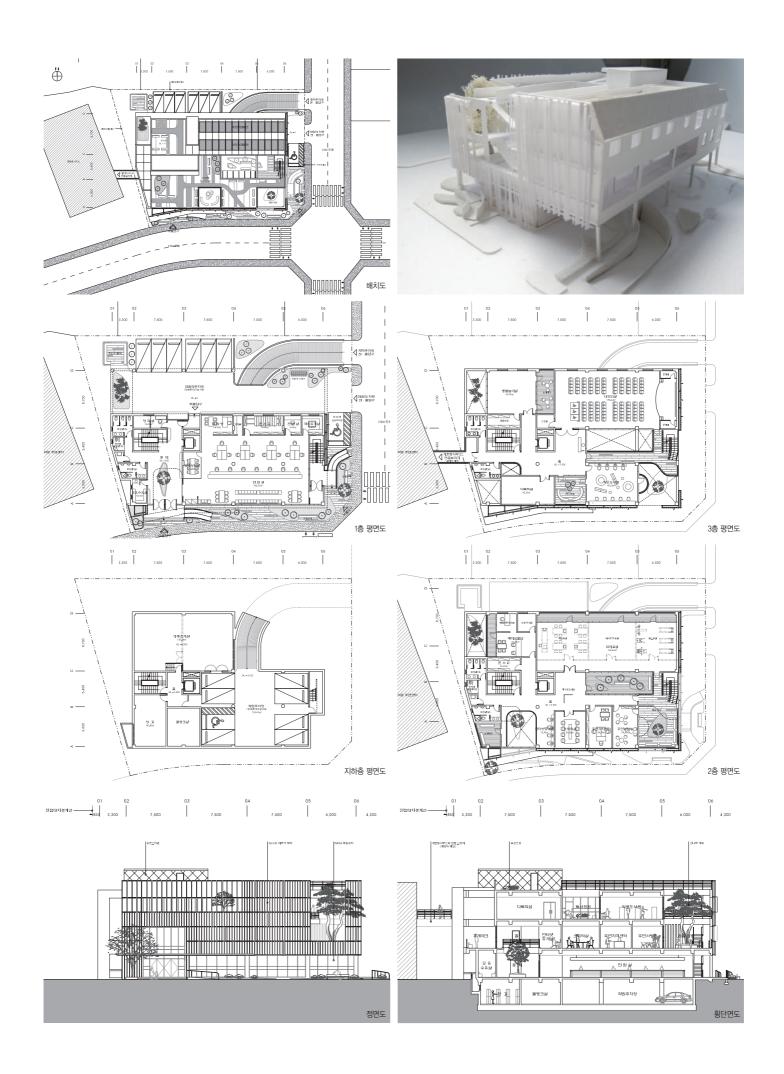
제주의 돌담은 자유로운 모양으로 생긴 현무암으로 쌓아져 이곳저곳에구멍이 뚫려 있다. 이러한 현무암을 현대적 기술을 이용하여 삼나무군락의 수직적 요소를 모티브로 건물 전면에 루버로 사용함으로써 아라동 주민센터는 현대적 건축물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현무암 루버사이로 자라난 소나무 가지들이 제주바람에 흔들거리는 모습은 산천단에 있는 공솔을 연상하게 할 것이다. 아라동 주민센터는 제주적 이미지를 갖춘 상징적 건축물이 될 것이다.

남북을 축으로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는 아라동 주민센터의 2층 또는 3층에서 한라산 방향을 바라보면 건물 외피인 제주석 루버로 인하여 외부 전경은 촘촘히 나뉘어져 파노라마로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한라산의 모습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단면개념

주민센터는 지역주민의 공동체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건물 내, 외부를 관입하는 휴 게데크를 계획하여 주민의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곳곳에 조경계획을 통하여 사 용자로 하여금 공간의 친밀성을 높였다. 圖



뇌물을 받은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죄로 처벌 받을까?

Can bribery charge be applied to committee member of architecture who taken bribes?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 시·군·구(자치구)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라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라 합니다(건축법 제4조 등).

중앙건축위원회는 70명 이내의 위원,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건축 관련 전문가인 '건축사'분들이 건축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 등)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국토교 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권의 유혹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도 광역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안입니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5692 판결). 그런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및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뇌물죄'는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가법제4조에서 뇌물죄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또한 제105조에서,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89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바꾸어 말하면, 특별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자는 부정한 돈을 받아도 뇌물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배임수재죄' 등 다른 죄가 될 수도 있지만,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낮으며,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05조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위원이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여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5692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뇌물죄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건축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내용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더하여 볼 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뇌물죄로 기소된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주위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 '뇌물죄'로 재판받거나 수사 받는 건축사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圖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⑨

제국의 황혼과 탁지부(度支部) 건축소(建築所)의 건축

Falling of the Empire and his Buildings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탁지부 건축소

개항이후 이 땅에는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건축이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개항장에는 상업을 위한 건축들이

지어졌고, 개항장을 벗어난 전국 각지에 서양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종교시설들이 지어졌다. 이 중에서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인 서울에는 외교공관들이 지어졌다. 동시에 조선정부와 대한제국정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서양의 건축양식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지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건축이 들어왔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의 건축방식으로 지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건축은 우리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점이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늑약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배를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기위해 한국의 내정에 적극 개입하며,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설계는 일인 건축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심기관이 탁

지부 건축소였다.

탁지부는 조선시대의 호조의 기능을 수행했던 정부기관으로, 1894년 11월에 성립된 김홍집, 박영효 내각에 의해 탁지아문의 이름을 바꿔 설립되었으며, 1910년 국권을 빼앗기면서 폐지되었

> 다. 한국정부에서 재무를 총괄하여, 회계, 출납, 조세, 구채, 화폐, 은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광무10년(1906년) 9월 24일 칙령 제55호 '건축소 관제'에 따라 탁지부 건축소가 설치되었다. 건축소장은 탁 지부 협판(協辦. 칙임관으로 현 차관 에 해당)이 겸임토록하고, 사무관 이 하는 탁지부 주임관(奏任官, 칙임관 아래 판임관 위 직급)과 판임관(判任 官. 조선 후기의 하위 관리)이 겸임케 하는 등 설립 초기에는 한인에 의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융희2 년(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42호에 따른 관제 개정1이후 탁지부 차관이 었던 일인이 건축소 소장을 맡으면서 건축소는 일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는 1907년 7월 24일의 한일신협약 (정미7조약)에 따라 각부에 설치된 고 문관 제도대신 일인 차관이 임명된 것 인데 이에 따라 초기에는 탁지부 협



그림 1. 건축소 공구별 공사

1) 대한매일신보 190년 8월 13일

판이었던 류정수(柳正秀)가 건축소 소장을 맡았으나, 한일신협약이후에는 고다 겐타로(荒正賢太郎)가 소장을 맡았다. 일인 소장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서무계장 사무관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일인들로 교체되었고, 구니에다 히로시(國校博)가 건축계장을 맡았다. 1909년에는 공사부장 및 건축과장을 사카이데 나루미(坂出鳴海, 1876-1928)가 맡고, 설계계장은 구니에다(國校博), 감독계장 이와다(岩田五月滿), 영선계장은 가츠마다(勝又六郎)가 맡았다. 일인 중심의 탁지부 건축소는 조선의 건축조직과 달리 서양식 정부 건축물의 생산에 관여했다.

조선에서 '건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894년이 처음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공무아문(工務衙門) 산하에 철도국, 역체국(驛遞局), 전신국, 광산국, 등장국(燈椿局)외에 건축국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산업시설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 부처의 설립을 의미했다. 기존의 '영선(營繕)' 또는 '영조(營造)'라는 말을 대신하여 최초로 정부 부처에 '건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건축국'이라는 부서가 만들어졌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이래의 건축조직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건축국'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건축'행위를 담당할 정부 부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탁지부 건축소는 '건축국' 이후 공식적으로 서양식 건축을 담당하는 첫 건축기관인 셈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탁지부 건축소는 1907년 3월부터 1909년 6월까지 8,000여건의 기록을 남겼으며, 이중에서 공사와 관련된 기록은 3,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²⁾ 건축소의 사업은 의료와 세관시설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집중되었다.

건축소에서는 각 청사 신축공사로 탁지부청사, 내부청사, 농상 공부청사, 건축소청사가 있고, 대한의원, 광통관, 인쇄국, 참정 과, 재판소(대심원과 경성공소원 본청사, 경성재판소 청사 등), 경찰서(평양, 대구경찰청사를 비롯하여 2등, 3등, 4등 경찰서 청 사 신축공사), 해관공사, 재무청사 및 각 관청에 근무하는 직원 을 위한 관사 등 신축공사를 수행했다.

건축소 조직

장관 아래 공사부를 두고 공사부 아래에 건축과와 토목과를 두었으며, 건축과에는 설계계, 감독계, 영선계, 토목과에는 설계계, 감독계, 기계계를 두었다. 공사부와는 별도로 경리과를 두었으며 경리과 산하에는 조리계와 서무계를 두었다. 이밖에 각 출장소와 연와제조소를 산하에 두고 있다. 건축소에서 연와제조소를 직접설치하여 운영한 것은 근대기 행정시설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벽돌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건축소는 건축재료 생산에서 설계에 이르는 운영체제를 갖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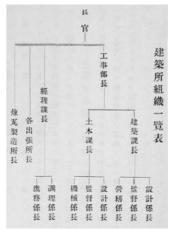


그림 2. 탁지부 건축소 조직도



그림 3. 마포에 위치한 관린연와제조소 전경

건축소의 정부 건축물

의정부청사에서 탁지부청사로

탁지부 청사는 의정부청사로 설계되었으나 준공 후에 탁지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탁지부청사가 지어진 곳은 구독일공사관 터로 1900년 한국정부가 독일로부터 땅을 매입하여 일부를 경운궁 궁역에 포함시켜 중화전을 짓는 터에 사용하고 나머지 영역에 의 정부청사를 건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07년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2대 황제인 순종이 창덕궁을 황궁으로 삼음에 따라 의정부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게 되어, 의정부 역할 대신 탁지 부청사로 사용된 것이다.(사진) 따라서 1902년에 경운궁과 구독일 공사관 터를 연결하는 구름다리(雲橋)는 기존의 경운궁과 새로 궁



그림 4. 탁지부청사(구 의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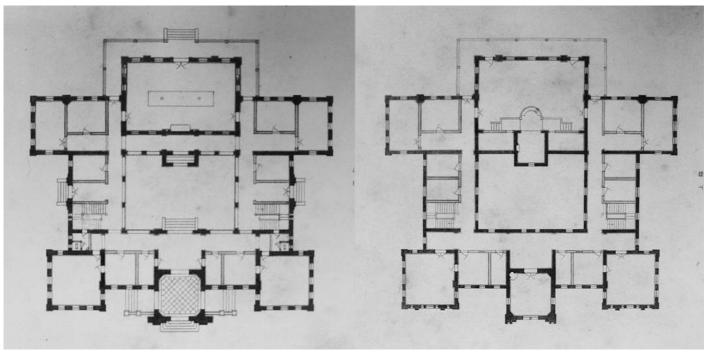


그림 5. 구의정부청사, 1층(왼편), 2층(오른편)

역에 포함시킨 땅을 기능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의정부 청사로 설계된 당시의 공간구성이다. 의정 부청사는 편전기능과 내각회의실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중앙의 중정을 중심으로 'ㅁ'자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북쪽에 주출입구가 위치하며 동쪽과 서쪽 양편에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이 마련되 었다. 실내 동선은 중정을 감싸고 있는 복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출입구가 북측에 마련된 것은 청사가 현재의 정동길에 면해 있 었기 때문이다. 황제의 업무 공간인 편전과 내각회의실은 남측에 위치했는데,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공간배치에 따른 것이다. 조선 의 전통에서 왕은 남쪽을 향해 자리를 잡는 것(南面)이 원칙이므로, 청사의 지세와 주출입구가 북향을 하고 있지만, 편전은 남쪽 에 배치되었고, 내각회의실에 위치한 옥좌는 북쪽에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황제에 대한 배려는 공간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층에 마련된 편전은 실의 양쪽에 출입구를 두었으며 남쪽으로 창이 배열되고 회의실 중앙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설치되었다. 1층의 편전 외부에는 베란다가 둘러쳐져 있었다. 2층에 위치한 내각회의실에는 황제가 앉는 옥좌가 북측에 높게 마련되었으며 1층과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내각회의실 외부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석조전과 중명전 등에서 사용된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베란다보다는 못하지만, 황제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배려라고 할 수 있다. 청사는 벽돌로 건축되었으나, 외부에 회반죽을 발라 석조의 의장을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지붕은기와로 마감되었다

탁지부청사가 의정부청사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경운궁의 궁역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의정부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궐밖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

대국가를 지향하면서 왕실행정과 국가행정을 구분하면서 궁내부가 독립함에 따라 명실상부하게 의정부는 국가행정을 전담하게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정부에 편전을 두고 내각회의실에 옥좌를 두었다는 사실은 구독일공사관 터가 중화전을 짓기 위해 매입했었다는 점과 구독일공사관을 경운궁과 연결하기 위해 구름다리(운교)를 설치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 서울시청의 서소문별관이 위치한 곳이 경운궁의 궁역에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가질 수있기 때문이다.

내부청사

내부청사는 1909년 6월에 착공되어 1910년 8월에 준공된 벽돌조 2층 건물이었다. 내부청사가 위치한 곳은 조선시대 의정부가 위치했던 곳으로 경운궁 남쪽에 위치한 구독일공사관 터로 의정부가 이전해 감에 따라 옛 의정부 터에 내부청사의 신축을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됨에 따라



그림 6. 일제강점 후 경기도청, 구 내부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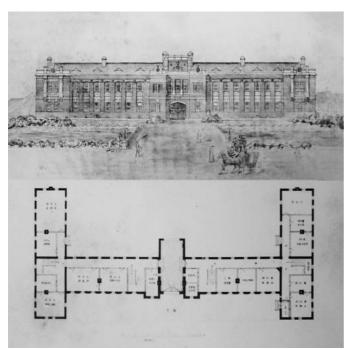


그림 7. 내부청사

강점이후에는 경기도청으로 사용되었다. 경기도청이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것은 일제강점과 함께 서울이 일국의 수도에서 경기도의 일개 도시로 그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의 식민지하에서 서울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자연스럽게 경기도청은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되었다.

내부청사는 르네상스풍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적 조 내력벽식구조의 특징이 세로로 긴 창의 반복으로 입면이 구성 되었다.

평면은 편복도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에는 현관이 위치하나 계단은 양쪽 끝에 배치되었다. 건물의 양쪽 끝은 뒤쪽으로 돌출되어 사무공간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ㄷ'자 형태로 육조거리를 향해 정면성을 확보하면서, 뒤쪽으로 마당을 감싸않는 구성을 갖고 있다. 난방은 2개의 사무공간의 경계에 하나의 난방 기구를 이용하여 두 사무공간에 난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건축에 소요된 벽돌은 마포 연와제조서에서 공급받았고, 목재 는 영림창에서 공급받은 관급자재가 사용되었다.

농상공부청사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로 건축양식과 구법은 내부청사와 유사하지만 중앙의 현관부의 처리와 돌출된 양단부의 의장적 요소는 내부청사에 비해 의장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며, 완성도도 높다. 현관부의 차량 접근이 가능한 포치와 중앙부의 아치형 페디먼트 (pediment, 삼각형 박공면) 그리고 중앙의 탑과 양단부의 입면구성과 변형된 삼각형 페디먼트 등에서 바로크건축양식의 의장적특징이 사용되었다.

외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흰색의 사용이다. 전체적으로 붉은



그림 8. 일제강점 후 상품진열관, 구농상공부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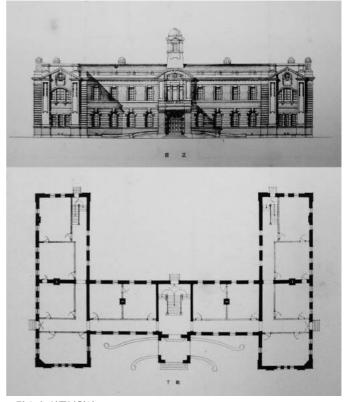


그림 9. 농상공부청사

벽돌이 사용된 가운데 두드러지는 의장적 요소가 흰색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흰색은 마포 연와제조서에서 만든 흰색 벽돌이다. 붉은 벽돌과 흰색 벽돌에 의한 의장적 효과가 빼어난 건축이다.

건축소청사

2층 목구조 건축이다. 중앙의 중정을 중심으로 각 실이 배치된 'ㅁ'자형 구성으로 지어졌다. 중앙의 현관부를 중심으로 양 단부를 돌출시켜 정면성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건축의 규범을 따르고 있으나, 서양식 목구조에 기초한 실용적인 건축이다. 내부공간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양측에 외래인을 위한 응접공간을 두어 입찰자와 일반인을 위한 접객공간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업무공간과 구분하였다. 외장은 비늘판벽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붕에는 영등 포 연와제조소분공장에서 제작한 기와를 사용하였다.



그림 10. 건축소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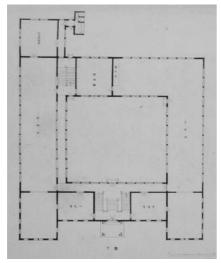


그림 11. 건축소 청사, 1층 평면

광통관

광통관은 융희원년 당시 정부재정고문관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후에 천일은행 수형조합(手形組合, 어음조합)으로 사용되었다. 벽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석재가 사용되었다.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자이언트 오더(Giant Order)와 돌출된 양측 단부 위의 나지막한 돔의 구성이 이채롭다. 그러나 1914년 2월에 화재로 소실되어 1915년에 복구되었으나 장식과 돔 부분이 변형되었다. 근대건축으로는 드물게 첫 용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축이다.

지반이 연약하여 말뚝지정을 하고 2자 두께의 콘크리트를 치고



그림 12. 광통관 현 모습



그림 13. 광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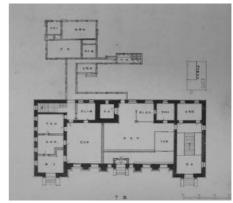


그림 14. 광통관 평면

지상부를 벽돌과 석재를 함께 사용하였다. 증기난방 장치가 설치되었다

부산세관

부산세관은 1883년 11월 3일에 첫 해관이 설치되었으며, 건축소 에 의해 설계된 부산세 관은 병합 전에 설계되 었으나 준공은 1911년 8 월 4일에 이루어졌다.

부산세관 청사는 철 도정거장과 본관에 인 접하고 주변에 목조 2 층의 세관감시부청사와 잔교 등이 입지한 번화 한 거리의 중심에 위치 해 있었다.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이지만 모서 리에 위치한 탑으로 인 해 오랫동안 주변에서 랜드마크적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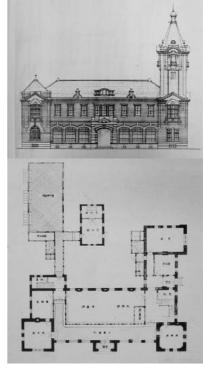


그림 15. 부산세관

를 구축하고 있었다.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으나 1979년 도로확장 공사로 철거됐다.

부산세관은 건축소에서 설계 시공한 건축물중 유일한 비대칭적 구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다. 고전주의 건축에서 건축물이 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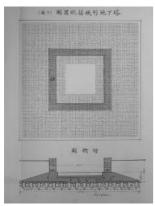


그림 16. 탑 하부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도면



그림 17. 부산세관 위치



그림 18. 강제 병합 후 부산세관과 상품진열관 모습

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미학적인 이유이외에도 건물의 구조적 안 정성을 배려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닷가 매립지에 세워지는 부산세관 건물이 위치한 곳이 지반이 연약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평면구성과 매스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평면과 매스구성으로 인한 건물의 부동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세관에서는 다른 건물과 달리 하중이 집중되는 모서리의 탑이 위치한 곳의 하부를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만들었다.

탁지부 건축소의 일인 건축기술자들

제1차 한일협약이후 일인 건축기술자들은 구한국정부의 위탁 관리로 근무하였으며, 1907년의 한일신협약이후에는 정식 관리의 자격으로 탁지부 건축소에 근무하며 건축행정을 담당하였다. 탁지부 건축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기술자는 공사부장이자 건축과장이었던 사카이데 나루미(坂出鳴海, 1876—1928)가 맡고, 설계계장을 맡았던 구니에다(國枝博), 감독계장을 맡았던 이와다(岩田五月滿), 영선계장이었던 가츠마다(勝又六郎)였다. 조직상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와타나베(渡邊節)도 건축설계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 사카이데는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 토목기술자로 대 장성(大藏省) 기사로 출발하여 탁지부 건축소를 거쳐 조선총독부 토목국 공무과장을 역임하였다. 사카이데는 조직상의 책임자이기 는 했지만 토목기술자였기 때문에 건축 업무는 실질적으로 구니에다. 이와다. 가츠마다. 와타나베가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에서 이와타는 1905년 인천해관 등대국에서 기사로 근무한 이래 세관공사부를 거쳐 탁지부 건축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탁지부 건축소에서 감독계장을 맡았다. 설계실장을 맡았던 구니에다는 1905년 동경대를 졸업하고 1908년에 재정고문부에 채용되었으며, 건축소 관제가 반포되면서 건축소 기사가 되었다. 건축소에서 설계계장을 맡으면서 건축소의 설계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판단된다. 1910년 7월 5일 장티푸스로 대한의원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기사가 실린 「建築雜誌」에는 한국 13도에 총 691건의 설계 감독을 했다고 언급되었다고 한다. 그가 한반도에서 활동한 일인 건축기술자의 선봉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김태중, 1993)

구니에다는 한국이 병합된 후에도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며 총독 부신청사 건축에 관여하였으며, 1918년 일본으로 돌아간 후 1919 년 구니에다공무점(國枝工務店)을 개설하였다. 영선계장을 맡았 던 가츠마다는 김태중³⁾에 따르면 독학으로 양식건축을 익혔다고 한다. 자세한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건축소에 가장 늦게 합류한 와타나베(渡邊節)는 1908년에 동경 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1908년에 건축소 기사가 되었다. 와타나 베는 건축소 조직에서 책임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건축설계계에 근무하며 중요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중에 따르면 와타나베는 부산세관감시부청사, 인천세관청사, 부산세관청사 등을 자신의 작품집에 실고 있다고 한다. 와타나베도 다른 건축기술자와 함께 1910년 이후 총독부 기사가 되었지만, 1912년 사직하고 일본철도원서부철도관리국 기사로 취직하여 경도역사 설계에 참여하였다. 와타나베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활동하였으며



그림 19. 인천총세관청사



그림 20. 부산세관감시소

고(村野藤吾)가 있다. 탁지부 건축소의 일 인 건축기술자는 대한 제국 말기의 정부 건 축물 설계를 주도하였 고, 대한제국이 식민 지화된 후 총독부에 근무하였지만, 모두 1910년대에 사망하거 나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1919년이 후에 건축 실무에 등장하는 한인건축기술자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

그의 제자로 무라노토

았다. 遺

건축과 함께하는

시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게재순서

총론

집터

고향집(生家)

집짓기

집과 가정

일상과 회상

빈집

동물의 집, 식물의 집 상상의 집. 영혼의 집

아파트

각론

지붕

기둥 벽

문 창

방

처마

굴뚝 계단

당장

※주기: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는 연바꾸기, ///는 전략,중략, 후략 시 사용.

집과 가정

집이 하드웨어라면 가정은 소프트웨어다. 건축사가 아파트처럼 형태와 크기가 같은 집을 무수히 지어도 가정마다 순간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고, 쌓아가는 역사가 다르게 마련이다. 건축사는 집을 만들지만 그 집의 역사는 사는 사람들의 몫이다.

성찬경³⁵⁾은 "나의 집"에서 "주문(呪文)찍힌 잡동사니가 / 탑처럼 쌓이는 유기질 동굴, / 들어 누우면 / 북통만한 방이 슬그머니 늘어나 / 팔 다리 뻗을 자리가 열리고 /// 빗방울이 천정에 해도(海圖)를 그리고 / 어린것들은 / 유년의 마술로 기적소리를 내며 / 책상다리 사이로 만국유람을 한다 / 별구경이나 할까 / 한밤중에 뜰에 나서면 / 나의 외피(外皮)인 식물들이 독바람 속에서도 /말없이 푸른 호흡을 하고 있다 / 다행이 가난이 나의 편을 들어주어 / 집이 좁아질수록 / 깊이 뻗는 뿌리." 라며 가난한 셋방살이를 스스로 위무하고 있으며, 강영은³⁶⁾도 "저녁의 노래"를 통해 엄마의 마음과 가족 간의 사랑을 포근하게 담아내고 있다. 아파트 창문에서 / 양수처럼 불빛이 흐르는 저녁 / 따뜻한 자궁에서 걸어 나간 / 지상의 아이들과 / 내, 낡은 집으로 돌아올 얼굴들이 어려/// 내 생(生)의 종아리가 단단해 진다// 식지 않은 기다림이 / 바글바글 끓으며 부풀어 오르는 / 된장 뚝배기의 저녁 // 안락할미새처럼 어린것들을 부르는 / 그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 지상의 모든 저녁을 지나는 / 저, 생의 종아리들 // 식탁 다리거나 밥상 다리같이 / 따뜻하고 둥근저녁에 이를 때까지 / 한 결 같이 무엇을 받쳐 들고 있다.

오랜만에 아내를 안으려는데 / '나 얼마만큼 사랑해'라고 묻습니다 / 마른 명태처럼 늙어가는 아내가 /신혼 첫날처럼 얘기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어 / 나도 어처구니없게 그냥 / '무량한 만큼'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 무량이라니! / 그날 이후 뼈와 살로 지은 낡은 무량사 한 채 / 주방에서 요리하고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거실에서 티비를 봅니다 /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은 /목탁처럼 큰소리를 치다가도 /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들어온 날은 / 맑은 풍경소리를 냅니다 / 나름대로 침대 위가 훈훈한 밤에는 / 대웅전 나무문

35) 1930. 충남 예산. 「논 위를 달리는 두 대의 그림자 버스」, 「해」. 36) 1957. 제주. 「스스로 우는 꽃잎」, 「최초의 그늘」 외

살 꽃무늬단청 스치는 바람소리를 냅니다

-공광규³⁷⁾ '내 마음 속의 집 한 채'

부부간의 깊은 사랑과 아내의 일상이 수채화처럼 그려진 가정과 달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시인은 오늘도 서비스로 나오는 마른멸치에 소주 한 잔 하고, 염치는 없지만 안심하고 머무는 집을 향한다. 쏟아지는 건축사들, 줄어드는 일감, 어쩌면 서로의 처지가 비슷한 것이 현실이다.

/// 주인 없이 문만 열린 집을 나와 / 좁은 골목에서 서로 / 어깨를 밀고 있는 집을 나와 // 어제도 갔던 집 / 염치는 없지만 안심하고 머무는 집 / 소주를 마시고 / 죽은 멸치 몇 마리를 고추장에 찍어 먹은 잘못 밖에 없는 시인의 / 홑 옷 한벌이 빨래줄에 널려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어둠 속은 깊어지고 / 이제 더 깊어질 것이고 / 시인 한잔 마음 한잔 / 신문지를 깔고 잠든 마른 멸치도한잔 / 셋이서 구겨진 몸들을 펼쳐놓고 / 자거라 자거라 / 멀리서들려오는 아이우는 소리를 재운다.

-김태준³⁸⁾의 '마음의 집 한 채'

현대인들은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념이 없다. 이러한 바쁨에 더하여 문명의 이기는 가족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감성은 메말라간다. 이런 세상을 유홍준⁵⁹⁾은 "우리집에 와서 다 죽었다"에서 "벤자민과 소철과 관음죽 / 송사리와 금붕어와 올챙에와 방아깨비와 잠자리 / 장미와 안개꽃과 튤립과 국화 / 우리집에 와서 다 죽었다 /// 죽음에 대한 관찰일기를 쓰며 / 죽음을 신기해하는 아이는 꼬박꼬박 키가 자랐고 / 죽음의 처참함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 음악을 듣는 아내는 화장술이 늘어가는 삼십대가되었다 /// 바람도 태양도 푸른 박테리아도 / 희망도 절망도 욕망도 끈질긴 유혹도 / 우리집에 와서 다 죽었다 ///"고 썼는데, 맞벌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현실에 "집이 나가버리기"도 한다.

집에 / 아이들이 / 없다, 엄마가 / 없다. 아빠가 없다, 집은 / 너무 외로워 / 나가버렸다

-조재도⁴⁰⁾ '집'

요즈음은 이삿짐센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사 전에 도배 커튼 등 소위 인테리어를 미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상화 되었지만, 그 역사가 긴 것은 아니다. 새로 이사한 집 단장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배어나오고, 가장의 마음도 볼 수 있다.

장판 깔고 도배하고 버티칼 치고 / 청소 다 끝낸 집에 / 짜장면

그릇 치워놓고 벌렁 들어 눕는다 / 궁색하던 스물과 고잔한 서른이 / 나란히 와서 눕는다 / 이 집에서 새살림 꾸리고 / 아이도 낳고 / 또 나이 들어가겠지만, / 이집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안다 ///지금 이 시간 바라는 것은 / 아침까지 이대로 / 아무 방해도 받지않고 누워있는 것이다

-장철문⁴¹⁾ '집'

얼룩진 벽지 벗겨내고 / 서리 앉은 곰팡이 먼지 쓱쓱 / 털어내며 집 단장한다 / 부엌 쪽으로 습기가 많았던지 / 초벌 도배 방습지 조각가지 풀썩 풀썩 / 떨어져 내린다, 수건으로 머릴 묶고 삭은 시멘트가루 뒤집어쓰며 / 싱크대 밑, 앞선이가 버리고 간 / 행주를 끄집어내는 아내여 / 세상은 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로 / 가득하구나 / 마른버짐 흠집 난 천장 / 오래 낡은 창틀 구석 / 새로 사온 고려화학 '누구나페인트'로 / 화사하게 색칠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 또 다른 덧칠에 묻혀 지워지고 말겠지만 / 켜켜이 쌓아온 지난 세월과 함께 / 새로운 먼지들이 이집을 다시 채우리라, / 붙박이 서랍 뒤 손이 가지 않는 틈새 / 붓솔질 힘주며마지막 찌든 때 벗겨내는 동안 / 도배지 위에 가지런히 앉아 / 가지 오른 김밥을 꺼내놓고 페인트 자국 묻은 / 내 뿔테안경을 닦는아내여 / 한세상 마른걸레질로 정갈히 다듬어 온 / 익숙한 솜씨처럼 해지는 쪽으로 / 손등 가리는 나의 처마여.

-고두현⁴²⁾ '헌집에 들며'

집만한 도량이 또 있으랴 / 세상 먼지 티끌 모다 끌고 들어온 / 저녁, 식구들이 쉬는 동안 / 제일 많은 때를 묻혀온 나는 / 걸레 를 빨자 / 낯짝을 씻어도 좋도록 / 밥상을 훔쳐도 좋도록 말갛게 // 엎디거라, 온몸으로 밀자 / 되도록 거룩한 맘으로 / 닦자, 또 / 닦자 ///

-윤제림⁴³⁾ '가(家)'

나는 혼자 보낸 휴일의 빈집을 청소한다 여름 볕이 내려다보고 있는 베란다 스테인레스 봉에 북어처럼 매달려 빨래집게에 등록되어 있는, 한 때 연인 같은 수건으로 쓰이던 흐린 하늘색 걸레를들고 나는 세면장으로 들어간다. /// 내 손아귀에서 닻줄처럼 쥐어짜진 걸레는 그물처럼 펼쳐져 정확하게 여덟 번으로 접혀선 크게 숫자가 씌여진 달력처럼 사각형의 선이 그어져있는 방바닥의장판 위에 놓인다. 그러자 걸레는 나의 눈대중으로 여덟 등분으로 갈라놓은 방안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한등분의 면적을 끝내면 걸레는 몸을 뒤집어 사용하지 않은 다음 면으로 다음등분의 면적을 향하여 갈 길을 간다 그 한등분에 월요일이가고 /// 토요일과 일요일의 분량까지 마친 걸레는 마지막 한 조각을

^{37) 1960.} 충남 청양. 「대학일기」,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지독한 불륜」

^{38) 1947.} 마산. 「몸바뀐 사람들」 외

^{39) 1962.} 경남 산청. 「상가(喪家)에 모인 구두들」, 「저녁의 슬하」 외

^{40) 1957.} 충남 부여. 「교사일기」 외

^{41) 1966.} 장수. 「바람의 서쪽」 외

^{42) 1963.} 경남 남해. 「늦게온 소포」

^{43) 1060.} 충북 제천. 「삼천리호 자전거」, 「사랑을 놓지다」, 「그는 걸어서 온다」



주인은 일 나가고 개와 닭이 집을 지키는 농가의 한 낮

남기자,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하루 한 자락의 바람이 매미소리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 내 몸 밖으로 돋아난 빼곡한 잔털들을 휘익 눕히곤 사라진다. 그렇게 짧은 풍요일의 오후가 가고. ///

-윤병무⁴⁴⁾ '풍(風)요일의 오후'

집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다. 소는 원래 생구(生口)라 하여 사람과 같이 쳐 주고 있지만 좋든 싫든, 알게 모르게, 주인 허락 과 관계없이 더불어 살고 있다.

작은 집 / 한 채 뿐인데 / 많이도 산다. // 암탉과 병아리 일곱 마리, 까만 염소 세 마리, 누렁이. 돼지 다섯 마리, 앵두나무 두 그루, 대추나무, 살구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두그루, 모과나무, 맨드라미, 분꽃, 백일홍, 수국, 굼벵이, 두꺼비. 지킴이 뱀, 생쥐, 굴뚝새……/ 다 모여 살아도 // 시골 할아버지네 집엔 / 수십 년째 / 다투는 소리 한번 없다.

-유미희⁴⁵⁾ '집 한 채에'

외딴집이다 // 둘러보니 / 아기 원추리 집 한 채, / 도라지꽃 집 한 채 / 뻐꾸기는 집이 여러 채,// 외딴집이 아니다 / 소란스런 마을 한복판이다.

-- 안도현 '산가(山家)1'.

집에 대한 회상

집은 삶의 터전이고, 어릴적 터전이 고향이다. 윤중호⁴⁶⁾는 "고향, 옛집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닐까? // 더 추운 곳으로, 기러기 진즉 떠난 윗말 강어귀에 / 도리어, 강바람 사늘하고 봄비 서러워 /// 닫힌 사립문 앞에 서성대다, 비에 젖어 / 멍하니 저무는 하늘만 바라"보는데, 이북 개성이 고향인 김광균⁴⁷⁾의"회상"은 "/// 작은 집을 큰집으로 고쳐 세우면서 // 이미 백년을 내다본 / 그분들은 다 가고 우리에게는 고향까지 없어졌다 ///"

/// 장에 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울던 집 / 할아버지 장죽을 두드릴 때마다 / 아직 식민지의 먼지로 가득하던 집 // 그 반짝이던 155밀리 박격포 놋쇠 재떨이 // 전쟁이 뒷산 넘어간 뒤에도 / 형 님은 빤스 고무줄에 돈을 꿰매 입고 / 논산훈련소로 가고 /// 세월이 많은 나라를 허물고 / 또 새 집을 짓는 동안 / 다시는 불 켜지지 않는 집 마당에서 / 긴 울음소리 하나 / 무너지는 집 한 채오래 떠받치고 있다

-이상국⁴⁸⁾ '마음속의 집 한 채'

시인은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물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집을 통해 쓰고 있다. 도시화로 텅 빈 시골집들, 오직 이를 겪은 사람만이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무너지는 집을 떠받치고 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가. 그리도 어렵게 오르내리던 언덕길, 비 새고 고생스러웠던 삶의 터전을 재개발로 그나마 떠나야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이농(離農)을 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는 시인은 떠난 사람이 하 많아, 아름답고 푸르른 밤을 같이할 동무를 그리워한다.

그집 / 절벽위에 피어 있던 집 / 한강이 마당이던 집 / 비닐 창 새어 나오는 불빛 강바람에 / 펄럭이고, 루핑 지붕에 파란 별 / 오래 머물다 가던 집, 평상에 / 온갖 일감 수북하여 고물 라디오 / 밤 늦도록 목이 쉬던 집, 고샅길 쫓아 / 낡은 짐자전거 올라오면 / 수박 한 덩이로 가득차던 집 /// 해머 질 서너방에 무릎 / 꺾이던 집, 무명보자기 몇 개로 / 싸이던 집, 소형트럭에 실려 / 낯선 길 털썩 털썩 가던 집, 지금도 / 가끔씩 하루의 가파른 곳에 피어나 / 남몰래 들어가 그 평상에 앉아보는 / 기억의 금호동, / 높고 높은, 그 벼랑의 집

-최을원⁴⁹⁾ '높은 집'

저 뒷울 댓이파리에 부서지는 달빛 / 그 맑은 반짝임을 내 홀로 어이 보리 // 섬돌 밑에 자지러지는 귀뚜리랑 풀여치 / 그 구슬 묻은 울음소리를 내 홀로 어이 들으리. // 누군가 금방 달려들 것

^{44) 1966,} 서울. 「5분의 추억」 45) 충남서산. 「짝꿍 다 봤대요」, 「나도 모르게 내가」 46) 1956, 충북 영동. 「본동에 내리는 비」, 「청산은 부른다」 외

^{47) 1914.} 개성. 「와사등」、「황혼가」 외 48) 1946. 강원 양양. 「집은 아직 따뜻하다」、「뿔을 적시며」 49) 1961. 경북 예천. 「계단은 잠들지 않는다」

같은 저 사립 옆 / 젖어 드는 이슬에 몸 무거워 오동잎도 툭툭 지는데 // 어허, 어찌 이리 서늘하고 푸르른 밤 / 주막집에 달려와 막소주 한 잔 나눌 이 없어 / 마당가 홀로 서서 그리움에 애리다보니 // 울 너머 저기 독집의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 / 어찌 저리 따뜻한 지상의 노래인지 꿈인지

고재종50)의 '사람의 등불'

고향을 다녀온 시인의 꿈과, 해외에서 꿈에 그린 고향집에 대한 회상이 대조를 이룬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낡아빠진 기와집이 / 한 마리 / 검은 물고기 같다 // 노을에 물드는 옛집 기왓장들, 비늘처럼 반짝이는 때 // 잡초우거진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면 / 아가미 같은 부엌문 덜컹 거리거 / 헐어빠진 옆구리로 저녁바람은 빠져나간다 // 살을 모두 발라먹고 남긴 생선 뼈다구처럼 앙상한 옛집 서까래들 // 피라미처럼 / 떼 지어 뭉쳐 놀던 / 육남때의 좌심방 우심실 두 칸 방은 허물어졌다 // 둥근 물고기 눈 흡 뜨고, 옛집 멀거니 바라보고 돌아온 날 // 꿈을 꾸었다 지느러미 같은 용마루 곧추세우고 // 옛집이 / 한 마리 물고기 되어 유유히 헤엄쳐 가고있었다 // 보름달처럼 환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 근심걱정없이 옛집 물고기 등에 올라타시고 / 아득하고 먼 망망대혜(茫茫大海).흘러 / 흘러가고 있었다

-유홍준 '물고기의 꿈'

손목 잡아끌던 것은 비였을까 / 모르겠네 날개 젖으며 옛집까지 / 날아간 이유를 모르겠네 깡마른 / 백일홍나무 한그루 비 맞으며 / 달려 나와 손잡아 주었지만 / 다른 꽃들의 안부는 애써 묻지 않았네 / 새떼들 자작자작 껌 씹는 소리 / 떨어지는 전깃줄 아래 왜소병 앓는 / 소철과 눈 짧게 마주 쳤을뿐. 등 돌리자 옛집 그 커다란 등치가 / 칭얼거리며 주춤주춤 따라 나섰네 / 안돼... ///



한국전쟁 이후 무질서하게 들어선 서민들의 삶터 금호동 달동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개발의 뒤안길에는 서민들의 아픔도 있다.

이 때 홀연히 나를 빠져나가는 나비 / 한 마리 먼 후일 날개 지치 도록 젖어 / 찾아왔을 때 밝아지는 전구처럼 / 내 몸이 환해졌네 어느 날 문득 / 그리워서 찾아올 지구 / 우리의 행성이 눈물겹도 록 따스했네.

-한혜영⁵¹⁾ '옛집에 갔네'

관심과 회상은 나의 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비정함에 가슴이 아프다.

햇빛이 강아지처럼 뒹굴다 가곤 했다 / 구름이 항아리 속을 기웃거리다 가곤 했다 / 죽어서도 할머니를 사랑했던 할아버지 / 지붕위의 쑥부쟁이로 피어 피어 / 적막한 정오의 마당을 내려다보곤 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떠나가던 집 / 빨랫줄에 걸린 구름들이 / 저의 옷들을 걷어 입고 떠나가고 / 오후 세시를 지나 / 저녁 여섯시 골목을 태양이 담벼락에 걸려 있던 햇빛들 마져 / 모두 거두어 가버린 어스름 저녁 / 그 집은 어디로 갔을까.

-권대웅 '장독대가 있던 집'

흐르는 물이 무얼 알랴 / 어성천 큰 산 그림자 싣고 / 제 목소리 따라 양양 가는 길 / 부소치 다리 건너 함석집 기둥에 / 흰 문패하나 눈물처럼 때달렸다 / 나무 이파리 같은 그리움 덮고 / 입동 하늘의 별이 북에 갔을까 / 방구들마다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 어둠을 입은 사람들 어른거리고 / 이 집 어른 세상 출입하던 갓이 / 비료 포대 속에 들어 바람벽 높이 걸렸다 / 저 만리 물길 따라 / 해마다 연어 돌아오는데 / 흐르는 물에 혼은 실어 보내고 몸만 남아 / 사진 액자 속 일가붙이 데리고 / 아직 따뜻한 집 / 어느시절엔들 슬픔이 없으랴만 / 늙은 가을 볕 아래 / 오래된 삶도 짚가리처럼 무너졌다 / 그래도 집은 문을 닫지 못하고 / 다리 건너오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

-이상국 '집은 아직 따뜻하다'

빈집

개 한 마리 / 감나무에 묶여 / 하늘을 본다 / 까치밥 몇 개가 남아 있다. / 새가 쪼아 먹는 감은 신발 // 바람이 신어보고 / 달빛이신어보고 / 소리 없이 내려와/불빛 없는 집 /등불 // 겨울 밤을 / 감나무에 묶여 낑낑거리는 개는 / 앞발로 땅을 파며 김칫독처럼 / 운다, 울어서 / 등을 말고 웅크리고 있는 개는 / 불씨 / 감나무 가지에 남은 몇 개의 이파리 / 흔들리며 흔들리며 / 새처럼 개의 눈에 아른거린다 // 주인이 놓고 간 / 신발들 / 빈집을 녹인다

-박형준 '빈집'

51) 1954. 서산. 미국이민 「태평양을 다리는 세탁소」, 「뱀 잡는 여자」 외

^{50) 1957.} 전남 담양. 「시여 무기여(소월시문학상)」, 「방죽가에 느릿느릿」, 「그리움의 발견」, 「바람부는 솔숲에 사랑은 머물고」

산책 길 옆에 퇴락한 기와집 / 오늘도 비어 있는 듯 / 마당과 옥상에 널어놓은 / 얼룩덜룩 빨래들 / 늘어난 셔츠와 해진 바지 / 빛바랜 치마와 꼬마 팬티 / 크고 작은 양말들이/가끔 바람에 흔들리며 / 빈집을 지키고 있다 / 주인은 어디서 고단한 하루를 견디는지 / 애들은 어느 아가방에 맡겨 놓았는지 / 낮에는 알 수 없지만 / 저녁때는 단촐한 식구들 / 모여서 살고 있는 듯

-김광규⁵²⁾ '빨래 널린 집'

까치밥으로 홍시 몇 개 남아있는 감나무에 묶인 개 한 마리. 밤 새도록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개와 신발도 되고, 등불도 되고, 불씨도 되는 까치밥 홍시가 외로움이나 쓸쓸함 보다 정 겹고 포근함으로 다가오는 빈집. 맞벌이 부부이기에 낮에는 널어놓은 빨래가 집을 지키는 집도 외로움이나 스산함보다 따스한 풍경이다. 이농 현상으로 오랫동안 텅 비었던 시골집에 IMF 금융위기로 할 수 없이 귀향한 가족을 '조금 일찍 돌아온 것 뿐'이라 위로하는 마음은 더 따스하다.

오래도록 잠긴 저 문에 / 누군가 빗장을 푼다 / 삭아 내린 싸리울바자 다시 세우고 / 눈보라가 설쳐대는 툇마루와 / 댓돌을 쓸고 / 댓돌 위에 신발 몇 켤레도 가즈런하다 / 어제는 서울서 일만이네 식구가 내려와 / 밤새도록 저 창호 문발에 불빛 따스하다 // 그 불빛 새어나와 / 온 마을이 다 환하다 /// 이제야 사람이 사람답게 보인다 // 아침부터 굴뚝의 연기가 치솟아 / 한밭재 대숲머리를 돌아나가는 / 저 들판의 자욱한 연기 보아라 / 오래 잊힌 자진모리 설움 한가락이 / 그렇게 풀리는구나 // IMF가 대순가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 벼르고 벼르던 30년 세월 / 조금 일찍 돌아온 것뿐이다

-송수권⁵³⁾ '빈집'

시인들은 자신의 나이 40과 빈집을 시의 주제로 택하는 빈도가 높다. 빈집의 대상은 위와 같이 잠시 비어있는 집도 있지만, 토담은 무너지고 흔하디 흔한 개망초들이 온 뜨락을 점령한, 공가(空家)도 있다. 시인은, 어쩌면 자신의 옛집이거나, 적어도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의 빈집을 보면서 옛날을 반추하며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또, 자신의 현실을 떠나 이상이 실현되는 집을 갖고 싶은 희망을 노래하기도 한다.

무너진 토담 한 귀퉁이, 햇빛이 빈 뜨락을 엿보는 사이 작고 흰 꽃을 흔들며 개망초 떼가 온 집안을 점령한다. 썩은 지붕 한구석이 무너진 외양간, 비쳐드는 손바닥만한 햇빛 속에도 개망초는 순한 눈을 뜨고 있다. 개망초떼들이 방심한 채 입 벌린 빈집을 상여처럼 떠메고 일어선다. / 혹시 집 앞길로 사람들이 흘러가다가,



닫힌 대문, 허물어진 회사벽, 빈집은 이렇게 쇠퇴한다.

잠시 멈춰 내리기라도 한다면, 개망초들은 시치미를 떼고 서서. 햇빛 속을 흔들리리라.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빈집은 숲속에 묻히겠지. /// 사람의 기운이 이제 아주 떠나려는듯 사랑방에선 두런두런 거리기도하고, 쇠죽 끓이는 냄새를 풍기기도하고, 외양간에 쇠방울 딸랑거리기도 하고, 누군가 쟁기며 삽날과 흙과 사람과 개망초 꽃더미 사이에 내쉬고 들이쉬던 숨결을 가만히 어루만져 거두어들인다. 언뜻 구름의 그림자가 빈 뜨락을 스쳐도, 그의 헛기침 소리 들었던가.

-김진경⁵⁴⁾ '빈집'

누군가 대문을 열라치면 털을 바짝 세우고 긴장한다. 이웃한 집들 잦은 웃음으로 기둥뿌리가 점점 긁어갈 때 일상에서 조금 씩 조금 씩 달아나는 집 무슨 일 꾸미는지 벌레와 새들이 문지방이 닳게 들락거리는, 언젠가 눈 먼 도둑 하나 담을 넘다 기겁했다는, 지난밤 폭풍을 견디고 넉넉한 햇살 아래 졸고 있는 그 집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이 여간 혹, 눈 앞 가로막는 추억의 앞발 몇 번 흔들어보이다가 쩝쩝 입맛 다시는 커다란 암코양이 같은 집 언제 낳았는지작은 새끼들 잔뜩 거느리고 오늘은 낡고 헐벗은 내 마음을 환하게들여다본다. 울타리 안의 것이라면 잡초 하나 버리지 않고 살찌우는, 빈집 한 마리 내 마음 속에 풀어놓고 싶어진다.

-문채인⁵⁵⁾ '빈집'

실존하지 않는 마음의 집을 짓는 시인은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집'을 '지도에도 없는 곳'에 짓기도 하고, 지금껏 지은 시가 어느 날 마음 비우고 보니 한낱 '상상임이었고 자신이 '빈집 속의 빈집'였다고 회한어린 고백을 하고 있다. 시인들은 구속하는 이 없이 시를 씀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질타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서 만족할 작품을 얻기가 어렵다. 이상적인 계획안은 휴지통속에 쳐 박히는 것이 모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작

52) 1941. 서울. 「우리를 적시는마지막 꿈.」 「처음 만나던 때」, 「시간의 부드러운 손」 외 53) 1940. 고흥. 「산문에 기대어」, 「꿈꾸는 섬.」 「우리들의 땅」

54) 1953. 충남 당진. 「슬픔의 힘」, 「광화문을 지나며」, 「우리시대의 예수」 등 55) 1963. 문경. 「자라」, 「은근한 소용돌이」

지도에 없는 길 하나를 만났다 / 엉엉 울며 혹은 치미는 눈물 을 삼키고 도시로 떠난 / 지나간 사람들의 그림자 가득해 / 이제 는 하루 종일 오는 이도 가는 이도 드문 / 한 때는 차부였을지도 모를 빈 버스 정류소 // 그곳에서 멀지 않은 비포장 길 / 지금 어 디에 있다고 너 이디로 가야 한다고 / 단호하게 지시하던 네비게 이션 소리도 멈춘지 오래 / 텅 빈 인적 없는 한적함이 두려움으로 찾아드는 / 길섶에 두려운 마음을 접고 차를 세웠다 // 오래전 서 낭신이 살았을 법한 늙은 나무를 지나 / 교목들이 이룬 숲에 노루 울음 가득한 여름 산길 / 하늘엔 잿빛 날개를 편 수리 한 쌍 낮게 날고 / 투명하고 차가운 개울 몇을 건너 / 굽이굽이 난 길들이 더 는 없을 법한 / 모퉁이를 돌아서도 한참을 더 걸은 뒤 / 고즈넉한 밭고랑 / 황토 짓이겨 벽 붙이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곡식창고 / 함석지붕을 머리에 인 처마가 깊은집이 있다 / 산나물이 들풀 처럼 자라는 / 담도 길도 경계도 인적도 없는 이곳은 / 세상에 대 한 기억마저도 비워낸 것 같다 그래서 // 지도에 없는 길이 끝나 는 그곳에 /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집 한 채 온전히 짓고 돌아왔다.

땅 끝을 지나, 빈집에 들어서야 / 내가 빈집 속의 빈집이었음을 / 알겠네, 땅 끝에 매달려 / 저기, 수척한 바다처럼 누워있는 / 사람, 그 바다에 / 나는 얼마나 많은 섬들을 띄워놓았던가 / 말의 섬들. / 햇살 속에 온갖 어족의 비늘들로 반짝이던 / 그 다도해, 그러나 그 섬들은/ 마당가에 뒹구는 빈 장독들처럼/ 불룩해진 배로 / 상상임신의 헛구역질만 하고 있음을 보네 / 말의 뼈를 뽑아 /삭아버린 서까래 하나 얹지 못한 / 덜컹이는 바람벽의 못하나 되지못한 / 빗방울 스미는 / 저 녹슨 함석지붕하나 떠받치지 못한 / 말의무수한 발자국만 남긴 / 몸, 이제 이 땅의 끝까지 지나왔지만/ 저기, 적호(赤湖)에 잠겨 잡풀 우거진 빈집으로 누워 있는 사람 / 그 빈집에 들어서야 / 내가 빈집 속의 빈집이었음을 알겠네.

-김신용⁵⁷⁾ '빈집 속의 빈집'

-- 곽효화⁵⁶⁾ '지도에 없는 집'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얹는다 / 벽을 들여 바르고 지붕을 세운다 / 이렇게 세운 집에서 한30년 / 나는 자못 만족해서 글도 쓰고 책도 읽는다 // 그러다 세월이 지나 그 집이 / 비도 바람도 막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나는 비로소 허물 생각을 한다 / 지붕을 거두고 벽을 턴다 / 서까래를 치우고 기둥을 들어낸다 // 그러고는 이 나라를 반 바퀴 도는 / 멀고 지루한 여행을 떠난다 / 하지만 돌아와 나는 절망한다. / 기둥도 벽도 형체도 없는 그 집이 / 오두마니 제자리에 서 있는 걸 보고.

연인을 향한 이성간의 사랑이든, 신을 향한 사랑이든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건축은 비움이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 그 공간은 채움을 위해 존재한다. 연모하는 이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며 모든 것을 비워둔 내 마음의 빈집이 있고, 언제든, 하느님이 기뻐할, 하느님의 은총이 채워지길 원하는 수도사의 빈집이 있다.

가을 밤 내 그리웠습니다 / 아직 오지 않을 사랑인 줄 알면서도 / 혹시 달빛으로 별빛으로 / 소식도 없이 올지도 몰라 / 아무도 서성이지 않는 산으로 가서 / 그대 잠들 빈집이 되어 기다렸습니다 // 겸허하기만 한 가을 산 속엔 / 나무들 옷 벗는 소리 끊긴지오래고 / 새들 곤히 잠든지 오래고 / 오직 그대 기다리는 내 빈집의 불빛만 / 흐린 날의 노을처럼 빛났습니다.// 멀리 있는 사랑을기다린다는 것이 / 얼마나 뜨거운 눈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 멀리 있는 사랑이 길을 돌아와 / 언제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습니다 / 다 / 이제야 빈집 되어 깨닫습니다 /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 나를 훌훌 비워내는 일임을.

-황청원⁵⁹⁾ '빈집'

나는 문득 / 외딴마을의 / 빈집이 되고 싶다 // 누군가 이사오 길 기다리며 /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 깔끔하고 단정해도 /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 한 채의 빈집 // 어느 날 /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 "으,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지어줄 /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이해인⁶⁰⁾ '외딴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빈집의 마지막 시는, 죽기 열흘 전에 쓴 기형도의 시이다. 죽음을 예감한 젊은 시인은 시작(詩作)의 고통과, 삶에 대한 열망에 고별하면서도. 끝 내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기형도⁶¹⁾ '빈 집'

다음호에 계속 🖹

^{56) 1967.} 전북 전주. 「인디오의 여인」

^{57) 1945.} 부산. 「몽유속을 걷다」 외

^{58) 1935.} 충주 농무. 「새재」, 「남한강」 외

^{59) 1955.} 전남 진도. 「우리나라 새벽안개」, 「떠돌이 별로 떠서」, 「바람부는 날에는 너

에게로 가고싶다」

^{60) 1945,} 강원 양구. 「작은 기도」,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꽃이 지고나면 잎이 보이듯이」

^{61) 1960.} 인천. 「요절시선」, 「서운 서른」

협회소식

제4회 이사회

2013년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기획위원회규정 개정의 건과 복무규정 개정의 건,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건,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기획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복무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

- 동호회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하기로 함.

구분	동호회 요청금액	결정금액
축구동호회	3,500만원	1,750만원
등산동호회	2,000만원	1,000만원
미술동호회	550만원	400만원
마라톤동호회	355만원	300만원
총 금액	6,450만원	3,450만원

• 제4호의안 :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성 명 : 권 병 조

▷임기: 2013. 4. 25 ~ 2016. 4. 24 (3년)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 2013년도 협회발전워크숍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세부적 인 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여 워크숍을 개최키로 함.
- 제2호 : 표준회칙 개정의 건
- 길기현 위원에게 위임함.
- 제3호 : 시.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길기현 위원에게 위임함.
- 제4호 : 친환경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연구원에서 자료를 보완한 후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 중장기발전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직원 충원계획을 검토. 특히, 해외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공조를 통한 연구 등 다변화 필요
 - ▷ 연구의 재정확충 방안 마련 필요

▲기타사항

- 이세권 위원을 정책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차기회의부터 회의 결과를 작성하기로 함.(사무처에서는 회의결과 작성 방 법을 안내)
- 차기 회의는 5월 14일(화) 14시에 개최키로 함.

김영수 회장, '2013년도 태국건축사협회(ASA) 컨벤션' 참석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태국 방곡 무안통 타니 임팩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태국건축사협회(ASA)컨벤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 참석은 태국건축사협회의 초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심재호 부회장이 동행했다.

김영수 회장과 심재호 부회장은 태국건축사협회와 상호 협회 관계자 방문 시 건축물 탐방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오는 2014년 개최될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초청될 회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와 양국 컨벤션 개최 시교차방문과 별도로 중간시기에 실무회의 개최, 아시아건축사협의회 (ARCASIA)와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최에 관한 협조 요청,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와 회장양해각서 체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과정' 수료식 개최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5월 9일 열린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과정 제12기 교육생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회장은 "이번에 수료한 교육생들은 친환경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다. 앞으로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친환경 건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료한 제12기 교육생은 44명이며, 교육기간은 1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과정의 수료생은 총 642명이 됐다.

송파지역건축사회, 간담회 개최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 전달



대한건축사협회 송파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1일 건축행정에 대한 소통강화,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 및 협조,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설명 등을 위해 '2013년 송파지역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 박춘희 송파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박춘희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 서도 건축사들의 사회봉사와 더불어 건축문화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천지역건축사회, 부천시와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재능기부 협약 맺어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24일 부천시 및 부천 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건축사회 51명의 건축사들은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관내 노후 공동주택 75개 단지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재능기부를 하게 된다.

지원하는 분야는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보수 및 보강, 장기수선계획 수립, 공동주택 행위허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단지 관리 업무가 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2013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5월 22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및 3층 국 제세미나실 등에서 '2013년도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건축사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본 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임원을 비롯해 각 시도 위원회 위원장, 시도 사무 처장 등 220여명이 모여 토론에 임했다.

김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워크숍을 통해 산적한 건축사 현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중요한 2가지 현안에 대해 집중으로 토론하고 논의해 보고자한다."며, "전국에서 모인 여러분들은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강연 시간으로 협회 제27대 회장을 역임한 한명수고문이 'Solution 1 건축진화론'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왕한성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건축사실무교육'안내 후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청조경제와 행복건축'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본격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분임토의는 '소규모건축

물 설계 및 감리제도 개선 추진전략'과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건축사 감리업무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 됐다

소규모건축물 설계 및 감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먼저 시공기술자 등 감리 참여와 관련해 △건축사법에서 정한 설계·감리는 건축사만이 가능 △시공기술사 자격 취지는 시공기술능력 배양 △참여 시 협회 및 회원들이 강력 대응 등의 결론이 나왔다. 또한 건축주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위한 법령보다는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함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단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 △건기연과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설문 등 대한건축사협회 의견 반영 노력 △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홍보 전략 강화 등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 주제인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건축사 감리업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위한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으며, 건축사 협동조합을 건축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선도 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한명수 고문 특별강연



분임토의

평택지역건축사회, 저소득층 학생 위해 1천만 원 성금 전달



대한건축사협회 평택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3일 지역 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평택시에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읍 \cdot 면 \cdot 동 및 무한돌봄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층 초 \cdot 중 \cdot 고등학생 4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평택지역건축사회 백승업 회장은 "이 성금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돼 희망의 씨앗으로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4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컨벤션 발표 제안서 공모

미국건축사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는 오는 2014년 6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예정 인 2014년도 AIA 컨벤션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2014년도 AIA 컨벤션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를 공모한다.

건축사의 자격 유지를 위한 계속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한건축사 협회는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 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에 있어 건축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채택된 제안서는 2014년도 AIA 컨벤션에서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및 국제협력 팀 02-3415-6828~27

건축계소식

2013 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2013 건설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6월 18일 15시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 식에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해당 협회나 조합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장희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전, 서울시청 신청사서 개최

이장희 작가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전이 서울시청 신청사 8층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오는 6월 24 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에 대한 작

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사라져가는 옛 건물들에 대한 향수, 그리고 잘 다듬어진 신도시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6층 시장실 옆 전 시공간을 조성, '세상을 바꾼 문서' 및 '외빈 기념품' 등 다채로운 작품 을 기획 · 전시할 예정이다.

· 문의: 서울시청, 02-120

단국대 건축학과 '건축을 바라보는 6가지 시선' 건축사진전 개최

단국대학교 건축학과가 '건축을 바라보는 6가지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DUCA 건축학과 건축사진전'을 개최한다.

30명의 단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작가로 참여한 건축사진전은 5월 29일(수)부터 6월 4일(화)까지 종로구 관훈동 갤러리 나우에서

열리며, 전시회 오픈식은 5월 29일 오후 6시에 진행된다.

이훈길 지도교수는 이번 건축사진전을, 한 학기 동안 '건축을 바라보는 6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작업한 결과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영감(inspiration)을 통한 건축행위에 중점을 둔 전시회라고설명했다.

강태웅 건축학과 학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과 건축을 통한 더 재미있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인지했기를 바란다"며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건축사진전이 연례행사로 쭉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문의: 갤러리 나우. 02-725-2930

평택지역건축사회, 저소득층 학생 위해 1천만 원 성금 전달



대한건축사협회 평택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3일 지역 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평택시에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읍 \cdot 면 \cdot 동 및 무한돌봄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층 초 \cdot 중 \cdot 고등학생 4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평택지역건축사회 백승업 회장은 "이 성금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돼 희망의 씨앗으로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4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컨벤션 발표 제안서 공모

미국건축사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는 오는 2014년 6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예정 인 2014년도 AIA 컨벤션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2014년도 AIA 컨벤션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를 공모한다.

건축사의 자격 유지를 위한 계속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한건축사 협회는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 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에 있어 건축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채택된 제안서는 2014년도 AIA 컨벤션에서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및 국제협력 팀 02-3415-6828~27

건축계소식

2013 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2013 건설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6월 18일 15시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 식에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해당 협회나 조합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장희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전, 서울시청 신청사서 개최

이장희 작가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전이 서울시청 신청사 8층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오는 6월 24 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에 대한 작

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사라져가는 옛 건물들에 대한 향수, 그리고 잘 다듬어진 신도시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6층 시장실 옆 전 시공간을 조성, '세상을 바꾼 문서' 및 '외빈 기념품' 등 다채로운 작품 을 기획 · 전시할 예정이다.

· 문의: 서울시청, 02-120

단국대 건축학과 '건축을 바라보는 6가지 시선' 건축사진전 개최

단국대학교 건축학과가 '건축을 바라보는 6가지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DUCA 건축학과 건축사진전'을 개최한다.

30명의 단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작가로 참여한 건축사진전은 5월 29일(수)부터 6월 4일(화)까지 종로구 관훈동 갤러리 나우에서

열리며, 전시회 오픈식은 5월 29일 오후 6시에 진행된다.

이훈길 지도교수는 이번 건축사진전을, 한 학기 동안 '건축을 바라보는 6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작업한 결과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영감(inspiration)을 통한 건축행위에 중점을 둔 전시회라고설명했다.

강태웅 건축학과 학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과 건축을 통한 더 재미있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인지했기를 바란다"며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건축사진전이 연례행사로 쭉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문의: 갤러리 나우. 02-725-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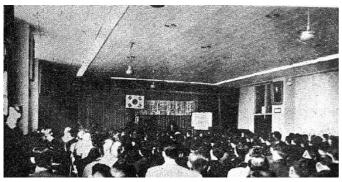
'정부종합청사 설계' 국내 건축사의 손으로!

국내 건축계를 경시한 '정부종합청사' 설계 논란

1968년은 1월 21일 발생한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 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민심은 31명 무장 간첩이 서울 시내에 잠입한 것에 흉흉했으며, 곳곳에서 '반공·반첩'이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됐다

김신조 사건 한 달 후인 2월 21일 신문회관 3층 회의실에 대한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인사와 관련 공무원 등 250여명이 모였다. '정부종합청사 설계'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다

당시 정부조직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 업무 진행 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총무처



정부종합청사 설계 관련 토론회 모습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낼 서한을 낭독하고 있는 김수근 건축사

는 종합청사 신축을 진행하게 된다. 총무처는 당초 설계경기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나상진건축설계사무소(이하 나상진건축)' 가 설계한 작품을 선정하고 계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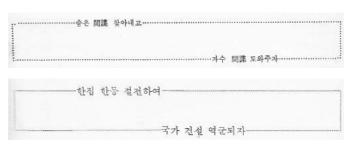
그러나 착공 2개월 뒤 총무처는 돌연 '국내 기술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미국 'PA&E'와 재계약을 하고 지질조사 및 기초설계를 맡기게 된다. 'PA&E'는 미8군을 대상으로 용역 일을 하고 있던 업체

총무처는 나상진건축의 설계안에 대해 "건물 내에 기둥이 없으면 좋겠다" "국립건설연구소가 한 지질조사도 믿기 어렵다" 등의이유를 들면서 계약을 파기한다.

사태가 심각하게 이르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종합청사 신축 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술검토를 하는 등 이론적 투쟁을 전개한 다. 정부종합청사 설계 관련 토론회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토론회에선 모든 건축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 사태에 대해 통감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건축계의 입장을 피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PA&E가 설계한 새로운 설계 안대로 정부종합청사는 그렇게 지어지고 만다.

김중업 건축사는 1968년 3월 건축사지에 "저급에 속하는 PA&E라는 소위 이름3자까지 분명치 않는 설계회사에 일을 주는 것은 한국역사상 커다란 오점을 찍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주관하는 행정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은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1968년 건축사지 3월, 5월호에 각각 게재된 캠페인 문구가 독특한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게 해준다.













육영수 여사도 관람한 '제2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

1967년에 이어 1968년도에도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가 열렸다.

1968년 5월호 건축사지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회관 옆 광장(현 세종문화회관 자리)에서 열린 제2회 전시회에 9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로 따지면 엄청난 인파가 모인 성공적인 행사로, 아마도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박람회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인기에 힘을 입어서인지 영부인 육영수 여사도 전시회를 관람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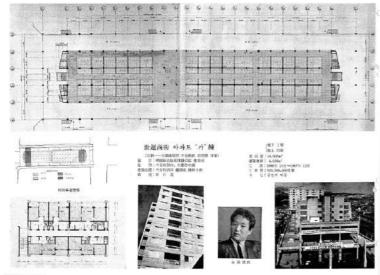


제2회 전국우수건설자재박람회

규모도 더욱 커져 1회 120평 32개 업체 600개 제품이 전시된 것에 반해 2회 때에는 200평 42개 업체 1,000개 제품이 전시되 어 양적으로도 증가한 행사였다. 圖



전시회 화보



건축사지 1968년 5월호에 게재된 회원작품 '세운상가 아파트 가동'. 설계자인 김수근 건축사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1968년 3월호 건축사지 표4(뒷면)에 게재된 광고. 일반인과 같은 모델 사진에 눈길이 간다.

다양성의 부족은 건축을 제한시킨다

Lack of Diversity Limits Architecture



Denise Scott Brown

데니스 스캇 브라운을 그녀의 파트너인 로버트 벤츄리와 함께 프리츠커 상 수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데니스 스캇 브라운의 남편이자 파트너인 로버트 벤츄리가 1991년도 단독 수상한 프리츠커 수상자 명단에 데니스 스캇 브 라운의 이름을 올려 달라는 최근 하버드대학교 GSD 학생들의 청원에 대해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당연히 올려져 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로버트 벤츄리와 함께 벤츄리 스콧 브라운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이자 파트너로서 당연한 자격 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의 2012년 프리츠커 시상에서도 반복 되었 다. 수상자인 중국의 왕슈는 부인과 사무소를 공동 대표로 운영 하고 있으나 그녀는 공동 수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시를 넘어서 이러한 누락은 프리 츠커 수상자 명단이 가진 다양성 부족의 진정한 상기인 것이다. 1979년도에 시작된 이 시상이 이루어진 이래. 단 두 명의 여성 건축사만이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자하 하디드와 카즈요 세 지마, 백인 남성 지배적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프리츠커가 아닌 건축계 자체에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진보적으로 변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건축계만큼 다양성이 적은 전문직은 찾기 힘들다. 미국 내 소수계 출신 건축사는 1에서 2퍼센트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은 여성 건축사들이 있 음에도, 전체 인원수로 보면 아직 슬플 정도로 적다. 미국건축사 협회는 전체 자격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사 중 여성의 비율은 겨 우 15 퍼센트라고 밝혔다.

이런 터무니없는 불균형의 원인은 명백하다. 고도의 숙련을 요하나 받게 되는 적은 대가는 풍요로운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 다: 말도 안 되게 요구되는 노동 시간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사람들을 건축계로부터 떠나게 했으며, 비싼 등록금과 적은 장학금, 그리고 극소수의 신규채용 상황은 학교들의 평판을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건축사등록 절차는 이러한 재원 확보가 안 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전근대적이다. 물론 몇몇 소수 그룹은 단지 계속되어온 문제라고만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건축계의 개선책 마련 노력이 있었다. 미국건축사협회는, 예를 들면 다양성 실행계획과 문제 평가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최근 발족시켰다. 이 자문위원회는 대학교들에게 전문대학 학점을 좀 더 많이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장학금

협력방안, 회사들의 인사팀에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협력요 청, 탄력적 근무시간,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아 또는 양육휴 직, 그리고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건축사들의 성취를 시상 프 로그램들을 통해 기념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가끔은 초기의 통계가 전망을 밝게 보여 주기도 한다. 최근 몇년간 장학금이 늘어났으며, 여성건축사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더욱 많은 여성들과 소수계가 이 건축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계가 더 많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더 나은 계획으로 이 집단들을 지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사실 남녀, 소수계, 구분 없이 겪고 있는 일과 생활 사이의 불균형을 더욱 정확히 해소해 주는 일이 확실한 답일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협회와 건축사사무소 스스로는 건축사가 일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 무엇보다도, 건축계 문화가 변해야 한다. 단지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옳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전문 집단이 되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필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 종종 건축계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으로부터 고고히 떨어져 있다. 하지만 건축계는 그 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더욱 큰시선의 다양성과 관점,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다.



Ningbo History Museum (2008), Lv Hengzhong / Atelier

확실히, 프리츠커 심사위원은 더욱 많은 여성과 소수계를 그들의 고민 속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건축계 또한 그들의 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훨씬훌륭한 인재 자원을 뽑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건축사협회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이와 유사한 이슈인 "Missing 32%" 심포지엄을 오는 6월 8일에 개최 할 예정이다. 제목에 명기된 수치는 건축학과 등록 정원의 거의 반이 여학생이나(대한민국 상황도 비슷함) 18% 미만만이 등록 건축사로 성장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심포지엄은 샌프란시스코의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에서 열린다.

'여성'이라 귀표 되어 있는 너무 많은 이벤트는 겨우 남성의 버린 빈자리를 여성이 대신 채우는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것은 다양성의 공존도 아니고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도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많은 일들이 유럽과 미국 바깥에서 항해 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디자인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 자체를 드러내야 할 시점이다. 圖

윗글은 Architect's Newspaper에서 일부 발췌 인용 했습니다.